

코스피	코스닥
2607.15	707.49
(-36.79)	(-8.99)
금리	환율
2.622	1465.95
(+0.004)	(-0.35)



韓 수출 1위 자동차에 25%... 트럼프, 또 '관세폭탄' 날려

철강·알루미늄 이어 세번째 자동차는 내달 2일부터 부과 엔진 등 부품은 5월3일 이전 관세 여파에 증시·환율 요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취임 이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세번째 품목별 부과되는 관세로, 내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예고돼 있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전선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특히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은 물론, 전체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미국 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



27일 경기도 평택항 내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자동차(경량트럭

포함)는 물론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 자동차 핵심부품도 포함된다. 자동차 관세는

내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 관세는 5월 3일 이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 품목 1위로 한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작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 달러(약 51조원)에 달한다.

자동차 관세 발표 여파로 증시와 환율도 요동쳤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04% 급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해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흔들렸다. 엔비디아는 5.74% 급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27% 내렸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9% 떨어진 2607.15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3153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국내 시장에서도 자동차 및 반도체 관련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현대차는 4.

28%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기아 역시 3.45% 내렸다. 반도체 업종에서도 SK하이닉스가 3.27% 떨어지며 약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1469.0원에서 시작해 개장 직후 1471.5원까지 올랐다가, 1465.3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 등 미국 주요 반도체주의 부진이 겹치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매출 출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다음달 2일 발표될 상호관세를 앞두고 최근과 같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검토해 국가별로 부과하는 상호 관세도 내달 2일 부과될 전망이다.

/한용수·원관희 기자 ys@metroseoul.co.kr

전 재산 팔아도 빚 못갚는 '고위험가구' 39만 달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보유부채 72조, 전체의 4.9%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취약

보유한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가 지난해 39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72조원으로 전체 가구의 4.9%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위험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3.2%인 38만6000가구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72조3000억원으로 전체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4.9% 수준이다. <관련기사 4면>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이 40%를 넘겨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 부채자산비율(DTA·총부채÷총자산)도 100%를 넘어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도 어려운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위험가구의 DSR은 75%이며, DTA는 150%로 나타났다. 소득 및 자산측면에서 채무상환 여력이 크게 저하돼 있다는 의미다.

특히 한은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고위험가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위험가구의 DSR과 DTA의 중위 값은 각각 70.9%, 149.7%로 수도권 고위험 가구(78.3%, 151.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지방은 상대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8.5%로 수도권(5.1%)보다 높고, 소득 기반이 낮아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방주택가격의 하락세가 뚜렷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고위험 가구가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금리 및 주택가격 변동분과 주택가격 전망을 반영해 지방과 수도권의 고위험가구 비중(금융부채 기준)을 시산한 결과 지난해 말 지방 및 수도권은 각각 5.4%, 4.3%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지방의 경제성장성이 수도권에 비해 부진한 가운데 최근 지방 주택가격도 하락해 향후 지방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지역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조기집행 및 부동산시장 유동성 지원 등 대응방안을 통해 지방 고위험가구의 부실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제2의 티메프 터지나... 발란 '정산금 지연' 발생

발란 '무대응'에 판매자 불안 증폭 본사에 '전 직원 재택근무' 내걸고 대표, 연락두절에 '확인중' 답변만

명품 플랫폼 발란에 정산 지연 사태가 터졌다. 회사 측이 명확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과거 '티메프 사태'를 떠올리는 판매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24일부터 입점 판매자들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란은 24일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재무 검증 과정에서 과거 거래 및 정산 내역 확인이 필요해졌다"며 정산 지연 사실을 공시했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이 이어지면서 판매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형록 발란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부터 내부 임직원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우려는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발란 측은 "현재 관련 내용은 확인 중"이라며 "앞으로 정산 일정 등도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발란이 기업 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발란의 모든 채무는 일시적으로 동결되고,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명품 유통 플랫폼으로 알려진 발란에서 정산금 지연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오피스 로비에 발란 직원 전원의 재택근무를 알리는 게시물이 설치돼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변제를 받게 된다.

그간 발란은 투자 유치를 내세우며 회사 성과를 홍보해왔다. 지난 2월에는 실리콘투로부터 15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실리콘투는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오픈마켓 운영 대행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당시 발란 측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전개를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불과한 달여 만에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실제 2015년 설립된 발란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자를 쌓아왔다. 누

적 적자는 총 700억원을 넘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4억원, 2021년 186억원, 2022년 374억원, 2023년 100억원 규모로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적자 폭을 확대해 왔다.

현재 발란 본사에는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입점 판매자 20~30명이 발란 본사 현장을 찾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항의하다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판매자가 정산대금 지연 관련 발란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발란 관계자와 만났다가 사내 컴퓨터에서 기업회생 자료를 발견하면서 직접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이다.

발란 측 관계자는 "파트너(입점 판매자)분들이 사무실에 오셨는데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다들 재택근무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발란 측의 대응이 없다면 입점 판매자들은 단체행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40여명이 참여한 판매자 채팅방에서는 "기업 회생에 들어가면 끝 아니냐", "티몬·위메프 사태와 유사하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한다", "단체 행동에 나서서 뭐라도 받아와야 한다" 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우원식,尹 탄핵 심판 촉구... "한 총리는 마은혁 임명하라" /사진 뉴시스
▲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1%...김문수 8%

▲ 한 대행 "통상 전쟁 피해 최소화...정부-민간 네트워크 총동원"
▲ '이재명 무죄'에 홍준표 "판사에 기대 대선 말자"

▲ 고은사 간 이재명 "복구 예산 걱정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 나경원 "이재명 무죄, 민주주의 근간 흔들 우려"

공룡만 살아남나... 쿠팡·C커머스, 물류 장악에 시장 '흔들'

中 테무, 김포 대형 물류센터 예정
알리바바도 韓시장 확대 투자계획
美, 수입제도 개편에 韓 공략 강화
쿠팡, 내년까지 3조 추가투자 계획
9개 지역에 물류 인프라 구축키로
롯데쇼핑, 내년 부산서 CFC 운영



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 조감도.

/쿠팡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쿠팡을 제외한 국내 플랫폼들이 정산 지연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고전하는 사이, 중국계 전자상거래(C커머스) 기업들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테무가 국내에 첫 물류센터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가운데,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쿠팡 뿐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확산됐다. 시장 전체가 '쿠팡 독주'와 '중국 플랫폼 확산'으로 양극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테무, 5만평 물류센터 세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

래 기업 테무가, 최근 중국계 물류 대행사 통해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인근의 대형 물류센터와 장기 임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류센터는 연면적 약 16만 5000미터제곱으로 약 5만 평 규모이며, 지하 1층 지상 10층의 대규모 상·저온 유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커머스 기업에게 자체 물류센터 가동은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온라인 쇼핑에서 '빠른 배송'이 핵심 서비스로 부상한 가운데, 외부 운송업체와의 협력보다 자체 물류망을 구축하는 것이 속도와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C커머스 기업이 국내에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테무가 처음이다. 이에 업계는 본격적인 한국 시장 점유를 위해 테무를 필두로 중국 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물류센터 확보 전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실제 중국 알리바바 그룹은 지난해 한국 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약 11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2억 달러를 투자해 국내에 약 5만 4450평 규모의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5만 4450평은 축구장 25개와 비슷한 크기다.

여기에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수입품에 대해 소액 면세 제도 개편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을 잃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환경도 조성됐다.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는 8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상품에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중국 C커머스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점유하는 데 핵심 기반이 됐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중국발 기업들이 소액 면세 제도를 활용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면세 한도 축소 또는 제도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 인프라 확충 경쟁 본격화

중국발 커머스 기업이 국내에 물류센터를 세우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자, 국내 기업들도 대응에 나섰다. 쿠팡을 비롯한 주요 유통업체들이 이커머스 물류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내년까지 3조원을 추가로 투자해 9개 지역에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러 개의 물류인프라를 건립해 전역을 로켓배송이 가능한 권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지난해 충남 천안과 남대전, 광주 물류센터는 운영을 새롭게 시작했

며, 지난해에는 충북 제천 물류센터 건립도 추가로 착수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 최대 1000억을 들여 착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제천첨단물류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약 1만6000평 규모로, 오는 2027년 상반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롯데쇼핑도 이커머스 집중 공략에 출사표를 던지고, 오는 2026년 부산에 풀필먼트센터(CFC) 1호점을 새롭게 운영한다. 약 1만 2500평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롯데쇼핑은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인공지능(AI) 기반 6개 CFC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류센터 건립 경쟁이 C커머스와 쿠팡 등 소수 유통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형적인 시장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센터는 빠른 배송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C커머스는 자본력을 앞세워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토종 이커머스 기업은 물류 인프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상태라면 시장은 쿠팡과 대기업, 그리고 중국발 커머스 간 양극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뒤통을 직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악화 속 연봉 20% ↑ 최윤범 '제 배불리기' 급급

고려아연, 작년 4분기 첫 분기손실
자사주 회상돈 매수 등에 부담 증가
최 회장, 연봉 36억1100만원 수령
직원 연봉 인상률은 8.3%에 불과



조529억원의 1.6%에 불과했다. 특히 4분기의 경우 연결 기준 2457억원 적자로, 고려아연이 지난 1974년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분기 단위 손실실을 기록했다.

전 세계에서 아연·연·은·인듐 등 4가지 금속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비철금속 세계 1위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두고 잡음이 무성하다. 고려아연이 지난해 4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손실실을 기록하며 영풍·MBK파트너스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윤범 회장(사진)은 기업의 경영보다 제 주머니 채우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고려아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급여 36억원에 기타 근로소득 1100만원을 합쳐 총 36억 1100만원을 회사로부터 수령했다. 최 회장이 받은 급여는 전년 대비 20.4%늘어난 수치다. 최 회장은 2023년 급여 29억9200만원에 기타 근로소득 800만원을 더해 총 30억원을 수령했다.

반면 직원들의 급여인상률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고려아연 직원수는 총 1944명으로 평균 1억11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는 2023년 평균 급여액 1억249만원 대비 8.3% 인상에 불과하다.

고려아연이 지난해 4분기 창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손실실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1951억원으로 매출액 12

원화 대비 달러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손의 영향도 있었지만, 대규모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무리하게 일으킨 고금리 단기차입금의 이자비용과 원아시아펀드 등 각종 투자 실패로 인한 기타금융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3분기 190억원에 불과하던 이자비용이 4분기 들어 741억원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또 그동안 미미하게 반영하던 각종 투자손실들을 4분기에 털어내면서 944억원의 지분법손실을 반영했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본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돈으로 자사주 공개매수 비용 1조8000억원을 사용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소송 등 법무 비용까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경영권 분쟁과 실적 악화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반 직원 인상률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급여를 지급받는 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돈을 활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

여의도 4배 면적 생산거점 확보... “美 모빌리티 시장 선도”

한미 정관계 인사들 준공식 참석
美 연산 100만대 생산체제 구축
정의선 회장 “미래 함께 열어갈 것”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6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25%)를 발표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 통합스마트팩토리를 완공했다.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대거 반영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으로 미국 모빌리티 시장을 이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차그룹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지은 ‘HMGMA’ 공장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곳은 이틀 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밝힌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핵심 거점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등 현대차그룹 핵심 경영진이 총출동했다.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와 버디 카터 연방 하원 의원, 앙헬 카브레라 조지아공대 총장, 조현동 주미 대사 등 한미 정관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첫 생산기지로 2005년 준공한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 2009년 가동을 시작한 기아 조지아 공장(KaGA)에 이어 16년 만에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을 새롭게 추가했다.

HMGMA 전체 부지 면적은 1176만 m2(약 355만 평)로 여의도의 약 4배에 달하며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 실증 개발한 최첨단 제조

혁신 플랫폼을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벌, 현대제철,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로템 등 주요 계열사의 미래 비전과 첨단 제조기술 역량이 총망라돼 있다. 부지 내에는 ‘프레스-차체-도장-의장라인’으로 이어지는 완성차 생산공장뿐 아니라 차량 핵심부품 계열사 및 배터리셀 합작 공장도 함께 들어섰다.

HMGMA는 지난해 10월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아이오닉5 생산을 시작했으며, 올해 3월에는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9 양산에 돌입했다. 내년에는 기아 모델도 추가 생산 예정이며, 향후 제네시스 차량으로 생산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혼류(1개 생산 라인에서 2개 이상 차량 생산) 생산 체제를 통해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종도 내년에 추가 투입함으로써 미국 시장 소비자들의 다양한 친환경차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아이오닉 5가 생산되는 모습. /현대차그룹

HMGMA는 최신 자동화·인공지능(AI)·IT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 전 과정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운영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으로 구

현됐다. 정의선 회장은 환영사에서 “HMGMA는 혁신적 제조 역량 이상의 더 중요한 가치를 의미한다”며 “우리가 주목하

는 것은 모빌리티의 미래이며, 바로 이곳에서 그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HMGMA 준공으로 현대차그룹은 HMMA, KaGA와 함께 미국 내 연 1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향후 조지아 HMGMA에 20만대를 증설해 연 120만대 규모로 미국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자동차 판매량은 2000년 40만대 수준이었지만, 현지 공장 설립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앨라배마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2006년 75만대, 기아 조지아 공장 준공 이듬해인 2011년에는 113만대로 판매가 급증했다. 2024년에는 171만대를 판매하며, 국내(125만대)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부 “車산업 비상대책 마련”

안덕근 장관, 민관합동 긴급 회의 개최
美 정부 적극 협력... 5월 중 대책 발표

우리나라 수출 효자품목인 자동차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정부와 업계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한 비상대응 방안을 내달 중 마련해 발표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현대차, 기아차, 만도, 현대모비스, 인פק, 자동차협회, 자동차 부품조합 등 업계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연구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5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달 발표할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에는 내수 판매 확대나 제3국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자동차 수출지역 다변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정부는 업계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방안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우리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국 정부와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세종=한용수기자 hys@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금융을 잘안다 보험을 잘한다

그래서
KB손해보험이다

보험도 결국 금융이니까!
금융을 잘 아는 KB가 보험도 잘 합니다
알면 알수록 보험은 KB손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펫보험

여행자보험

임보보험

자녀보험·태아보험

KB손해보험

주식·환율 변동성 커지면... 금융 부실 '도미노' 현실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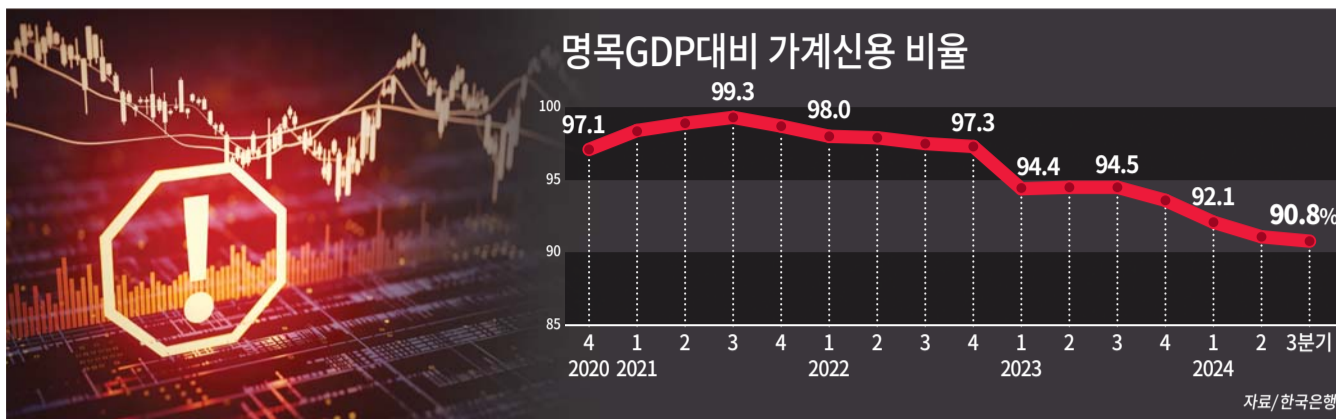
대외 불확실성에 시장 변동성 확대
자영업·중소기업 부실 우려 커져
가계·기업 신용 모두 둔화세 지속
지방·비은행 건전성 악화 가능성

대외 불확실성과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채권·환율 등의 변동성이 커지면 취약부문 부실이 증가해 익스포저 (Exposure·위험노출금액)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2월 19.1로 주의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안정상황을 부문별로 보면 신용 시장은 가계와 기업 대출은 모두 낮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



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97.3%→2023년 93.6%→2024년 3분기 90.8%로 떨어졌다.

기업대출도 투자가 위축돼 증가세가 둔화됐다.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은 지난 2023년 3분기 114.8%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1분기 112.3%→2분기 111.6%→3

분기 111.2%로 줄었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이 시행되면서 소폭 하락했다.

대외부문을 보면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까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11월 5일을 기점으로 1400원대로 올라선 뒤 12월 3일 비상계엄사태로 1472.5원까지 올랐다.

다만 외화자금조달 여건과 대외지급

능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투자거래의 경우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확대되고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올해 들어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대외지급능력을 가능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은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값으로, 한 국가의 대외지급 능력을 보여준다.

2023년 8102억달러였던 순대외금융

자산은 2024년 1조1022억달러로 36% 증가했다. 지난 2023년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 달러를 넘는 나라는 일본, 독일, 중국, 홍콩, 노르웨이, 캐나다 6개국 뿐이다.

황건일 금융통화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높은 불확실성과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 외환시장에서 주식·채권·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하 등 금융여건이 완화돼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일부 지방·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DB손해보험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PF 부실, 지방·비은행에 '집중포화'

수도권 상승세 속 지방 매매가 하락
고정이하 여신비율 평균 12% 넘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방 소재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부실이 커진 상태다. 유동성 확충과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 안정 상황'에 따르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말 2.4%에서 2024년 말 6.8%로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대출금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말한다.

한은은 이러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수도권보다 지방소재 예금취급기관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균 10.2%로 집계됐다.

다만 수도권은 9.8%로 평균보다 낮았고, 지방은 12.2%로 평균보다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을 보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6%를 상회하는 저축은행의 비중은 지방이 27%로 수도권(7.1%)보다 많았다"며 "반대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6%를 하회하는 자산건전성 양호한 저축은행은 수도권이 72.5%로 지방(24.1%)에 비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시장이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을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지만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3.62%, 수도권은 1.67% 상승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1.04% 하락했다.

지방 주택을 매매하려는 이들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PF의 부실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美 관세폭탄 우려에 코스피·환율 '살얼음판'

韓 여전히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 외환시장을 살펴보면 대내외 여건이 변화할 때마다 수시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코스피(KOSPI) 지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미 관세 정책 및 경기둔화 우려 등이 커지며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 뒤 2360.6포인트(p)로 연 저점을 경신한 코스피는 추가 저평가 인식으로 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유예되면서 2671.5p까지 올랐다. 3월 들어서는 미국 경기 둔

화 우려와 미국의 관세 부과 예고 등이 더해지며 2528.9p로 또다시 하락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도 변동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초 1401.3원었던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같은 달 1472.5원으로 71.2원 뛰었다. 2월 한 달간 평균 1445.6원인 원·달러 환율은 3월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1461.8원까지 오른 상태다.

2월 이후에는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환율이 낮아졌지만, 2월 말부터는 미국의 관세정책을 포함한 정치·경제 이슈가 부각되며 다시 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Existenzialien
SK Innovation

[에너지의 무한공식]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 시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면

이노베이션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의

답을 찾습니다



與野, 산불피해 대응책 논의 와중에... 재난 예비비 두고 이견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 회의 피해복구·이재민 지원에 당력 집중 “예산안 삭감에 재난 예비비 부족”

민주당 산불피해 지원 TF 구성 신속한 산불진압·피해 복구 요청 “이미 재난대책비 편성돼 있어”

경상권의 산불 피해가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가 본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 편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확보에는 대립하고 있어 재난 앞에서도 정쟁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불 비상 상황 점검과 피해 복구 지원 등에 대한 여야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주로 경상권에 집중된 이번 산불은 27일 오전 6시 기준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의 피해를 냈다. 과거 1989년 26명, 1995년 25명, 1993년·1996년·1997년 각 24명, 1994년 18명 순으로 산불 피해가 컸지만, 2025년 산불은 최악의 산불 피해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불의 피해규모는 오전 기준 3만6009ha를 넘어 서울 면적의 60%를 집어삼켰고 이재민의 수도 3만명을



권영세(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이만희(왼쪽)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흘쩍 넘겼다.

여야는 각각 특위를 만들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논의하고 여야 지도부는 산불 진화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거나 직접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국민의힘은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1차 긴급회의를 열고 예산 확보와 피해 복구·이재민 지원 등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정부에 현재 경북 의성,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군으로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을 경북 안동·청송·영양 등으로 확대를 요청하고 추경안 편성시 재난 예비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난 지역에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장기

적으로 산불 진화용 대형 헬기 구입, 헬기 임차비용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병도 재난재해대책특별위 위원장,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등과 전날(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 등을 찾아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당국에 신속한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를 요청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 편성시 재난 복구를 위한 예비비 증액 편성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둔 돈을 의미한다. 주로 목적 예비비가 사용 용도를 예산총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재해대책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광화문 천막 당사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 환차손 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 위원장은 “정부 계획대로 올해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원 정도 예비비가 통과됐었는데, 지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서 절반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재난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지금 1조 5000억~6000억원이다. 재난 하나에도 많은 예비비가 필요한데, 야당과 적극 협조해서 추경 편성 때 재난 대응 예비비가 늘 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참고로 지난해 강릉 산불이 났을 때 예산이 4500~5000억원 정도 소요된 것 같다”며 “재난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소요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서 1조 5000억원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예비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가 3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도 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며 “그것도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도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추가적 예비비 편성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무죄’에 발 묶인 與... 野 공세 강화할 듯

정쟁 멈추자던 與, 2심 재판부 비판 사법부·현재 여여 색깔론 꺼내기도 조기대선 대비 李 사법리스크 부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에서는 당혹감이 감돌았다. 1심 판결인 징역 1년·징역유예 2년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이 대표와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물론 아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가장 우려했던 재판 중 하나가 어느 정도 해결된 셈이라, 이 대표의 조기 대선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여권 잠룡들의 전략수정도 불가피해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자”고 했던 모습과는 다른 행보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하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취재진들에게 “비대위 기사를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쓰지 말라. 서울교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골프 회동’이라고 제시됐던 사진이 조작됐다고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여여 색깔론을 꺼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교롭게 정치인이 관련된 이 사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12·3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이 대표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정 지지율이 좋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여론이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유죄만 기다리고 전략은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다.

물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검찰이 상고했기에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8개 사건으로 고소돼 5개 재

판을 받고 있기도 한다. 아직 여권에 반전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그레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진영 간 대결’을 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기 대선을 전제로 행보하던 여권 잠룡들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대부분의 주자들은 대권 행보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반면 이 대표는 야권 인사인데다, 무죄 판결로 부담을 덜었으니 조기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발이 묶여있는 여권 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인지 대선 주자들은 전날(26일) 이 대표 선고 직후 일제히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조기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지난해 국회의원 10명 중 8명 재산 늘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재산 1위’

경기 침체에도 지난해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그중 국회의원 162명은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231명이다.

국회의원 재산 증가자는 규모별로 5000만원 미만 증가자가 36명(15.6%), 5000만~1억원 미만 증가자가 33명(14.3%),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증가자가 149명(64.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증가자가 12인(5.2%), 10억원 이상 1인(0.4%)였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박 의원은 1년 전보다 19억8535만원 늘어난 360억35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의원의 배우자 명의 예금이 1년 사이 31억532만원 증가했다.

국회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 1·2위는 안철수·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재산이 33억4566만원 줄어 1367억89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재산이 27억7976만원 줄어 535억32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야 지도부도 재산이 늘어난 의원이

여럿 있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재산이 1억5005만원 늘어난 45억7792만원을 신고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억9644만원 증가한 51억7521만원을 신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6만원 늘어난 12억6099만원을 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보다 2613만원 적은 30억8914만원을 신고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억25만원 늘어난 29억6574만원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중 재산 감소자는 68인(22.7%)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감소자가 21명(30.9%),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감소자가 12명(17.6%),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소자가 19인(27.9%),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감소자가 6인(8.8%), 10억원 이상 감소자가 10인(14.7%)으로 나타났다.

가장 재산이 적은 의원은 정준호 민주당 의원으로 -11억2833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건물 13억원과 예금 3000만원을 신고했으나 27억원 가량의 채무로 인해 재산 총액이 마이너스였다.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채무, 배우자의 사인간 채무 등이다.

여야 의원들 중 본인 혹은 배우자, 직계 가족이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한 의원은 총 52명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고한 건 유동수 민주당 의원으로, 배우자 명의 3억6357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신규 등록했다. /박태홍 기자



퇴직연금 사업자평가
수수료 효율성 부문

4년 연속 우수 선정

'19, 21, 22, 23, 24년 우수사업자 선정
[출처: 고용노동부]

5회 이상 우수평가는
신한투자증권 뿐!



프로의 %관리를 조건없이 무료로! 신한투자증권 프로 IRP

연금리더와 디지털PB의
1:1 고객 맞춤형 컨설팅

대면/비대면 IRP 관리수수료 0원
[단, 상품별보수 별도발생]

퇴직연금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펀드 보수 등 상품별 자체비용 및 증권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C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가입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부담 DC 운용관리 수수료율: 연 최소 0.08%~최대 0.25%, 사용자 부담 DC 자산관리 수수료율: 연 최소 0.10%~최대 0.20% [적립금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 0% [단, 펀드 보수 등 상품 자체 비용 발생 가능] [연금저축 유의사항] 연금저축 ETF 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 수수료율 0.189733%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0480호 [2025년 03월 19일 ~ 2025년 12월 31일]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5084호 [2024년 12월 15일 ~ 2025년 03월 31일]

자산 늘어나는 보험사·연기금... 혁신기업 투자 독려해야

운용 자산규모 20년간 3배 늘고 투자금액 20.4조→53.4조로 상승 EIF '기금도입' 혁신기업 투자 독려 韓 정부, 혁신지원 효과 실현위해 스텐드업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사 연기금 관련 이미지.

글로벌 보험사와 연기금이 창업·혁신기업을 위한 '장기 투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의 운용 자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막대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흥국의 경제성장예 따라 보험 상품 수요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보험사의 자산 축적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전 세계적 고령화로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의 관심이 증가해 연기금의 자산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보험사와 연기금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지난 2002년 22조9000억달러에서 2022년 69조7000억달러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투자 금액도 같은 기간 20조4000억에서 53조4000억달러로 2배 넘게 상승했다.

보험사와 연기금은 고객의 보험료와 저축을 긴 시간에 걸쳐 관리한다. 단기

시세 차익 보단 장기 투자 수익 실현과 기업 성장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얻는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혁신기업 성장 지원에 보험사와 연기금의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유럽은 기업 혁신에서 미국과 아시아에 뒤처지고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위치도 약해지고 있어 혁신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와 연기금의 투자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투자기금(EIF)은 지난 2017년 'AMUF(자산관리 엄브렐라 기금)'을 도입해 각국 보험·연기금이 자국을 넘어 유럽 전체 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티비이니셔티브(Tibi Initiative)' 프로그램으로

우수 벤처펀드에 대규모 기관투자를 연결하고 영국도 '롱 텀 에셋 펀드(Long Term Asset Fund)'를 통해 퇴직 연금이 사모펀드 등에 투자되는 것을 허용했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유럽 내 혁신 증진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사와 연기금의 투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보험사와 연기금이 기업 혁신 지원과 경제성장 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스텐드업 코드(Stewardship code)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보험사와 연기금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장려했다.

또한 정부는 연기금의 벤처 펀드 출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기금과 연기금투자자의 기금 운용 평가에 벤처투자 가점 기준을 개편해 벤처투자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정책은 주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해 소규모 창업기업까지 포괄하기엔 아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사와 연기금의 소규모 창업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들은 아직 도입 단계라는 분석이다.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보험사와 연기금에 대한 여러 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소규모 창업 기업에 관한 정책은 아직 도입 단계"라며 "과도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기업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 처럼 정부가 우량 벤처 캐피탈 기금을 선정해 안정성을 보장하거나, 영국 처럼 시장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DC형 퇴직연금에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현대해상 '창립 70주년' 엠블럼·슬로건 공개

현대해상은 27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엠블럼과 슬로건을 공개했다. 이번 엠블럼의 디자인 모티프를 '하트(Heart·마음)'로 삼고 진심과 전심을 다해 고객과 구성원의 삶 속에서 함께해 온 70년의 여정을 담았다.

엠블럼은 숫자 '70'을 다채로운 색상과 기하학적 도형들의 조화로 형상화해 현대해상이 마음을 나눈 모든 순간을 표현했다. 따스하고 생동감 넘치는 색상과 부드러운 질감의 표현을 통해 현대해상의 휴머니티를 담았다.

슬로건 'Sincerely yours 1955-2025'는 정성스러운 편지의 뉘앙스처럼 현대해상의 지난 여정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애정과 존중을 표하고 새로운 100년의 희망을 전한다.

삼성화재 '원팀골프보험' 출시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개별 개인 정보 입력 없이 라운딩 동반경기자 전체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원팀골프보험'을 출시했다.

원팀골프보험은 가입자 본인의 정보만 입력하면 동반자들은 무기명으로 자동 보장된다. 동반자가 매년 달라져도 별도 변경 없이 본인 정보로만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업계 최초로 탐단위요율을 적용해 라운딩 인원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험료로 동반자 전원이 보장받을 수 있다. 팀 내 본인 및 동반자의 배상책임은 물론 출원을 했을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하고 가입자 본인의 상해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KB손해보험 유튜브 '견생2막' 공개

KB손해보험은 27일 긍정적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제작한 펫보험 연계 콘텐츠 '견생2막'을 KB손해보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견생2막은 주인을 만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강아지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낸 콘텐츠다. 반려견의 시선에서 직접 견생(犬生)을 이야기하는 독특한 콘셉트가 돋보인다.

견생2막은 총 4회로 제작됐다. 격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이를 기념해 견생2막 감상평 이벤트를 진행한다. 영상을 시청한 후 KB손해보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감상평을 댓글로 남기면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펫웨어를 증정한다.

/김주형 기자

“매일 경영방향 고민... 1.2만 조합원 ‘안심 금고’ 만들 것”

새마을금고 새 얼굴

손인창 중곡1동 이사장

전국동시 이사장선거 재선에 성공 공동대출 제로화 등 4개과제 제시 조합원 120명과 견학 '소통 강화'

“올해는 경영환경이 더 어려울 전망이다. 매일 금고 경영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하지만 심사숙고하고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조합원 이익을 증진하겠다.”

27일 손인창 서울 중곡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 이사장은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곡1동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는 1601억원이다. 선거는 대의원제로 진행했으며 대의원



손인창 중곡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정산 기자

120명 중 1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손 이사장은 76표(65.51%)를 득표해 최종 당선됐다.

손 이사장은 향후 과제에 대해 ▲공동대출 제로화 ▲조합원 소통 강화 ▲임직원 복지 증진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지난 임기 기간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포부다. 그는 목표를 달성을 위해선 건전한 금고 경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억1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다 올 1분기에도 연체율이 오르고 있어서다.

가장 먼저 공동대출 제로화에 나설 계획이다. 공동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리면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 포트폴리오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내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가계대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손 이사장은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내달 19일에는 조합원 120명과 함께 천안에 있는 MG인재개발원으로 견학을 떠난다. 견학과 함께 초빙 강연도 예정돼 있다.

손 이사장은 "코로나19 당시 취임해 조합원들과 깊은 소통을 나눌 자리가 부족했다. 임기 후 처음으로 조합원을 제대로 모시는 자리다. 이번 견학이 조합원들과 유대를 한층 더 쌓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토허제 재지정’ 송파 아파트값 하락 전환

서울은 8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송파구는 13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여파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

째 주(24일 기준)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25%) 대비 0.11% 상승하며 8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강북권은 성동구(0.37%→0.35%) 응봉·행당동 역세권, 용산구(0.34%→0.18%)는 한강로·이

촌동 주요단지, 마포구(0.29%→0.21%)도 염리·아현동, 광진구(0.25%→0.15%)는 광장·구의동 학군지, 종로구(0.06%→0.07%)는 창신·평창동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권은 강남구(0.83%→0.36%)는 개포·압구정동 주요단지, 서초구(0.69%→0.28%)는 반포·잠원동 재건축 추진 단지, 양천구(0.32%→0.29%)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송파구(0.79%→-0.03%)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대폭 하락하며 강남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일부 선후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며 "다만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심리 확대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jw13@

AI·DX 등 미래 성장전략 공유... 매출 안정성 강화 '방점'

산업계 주주총회

SK하이닉스

올 하반기부터 HBM4 양산 계획

HD현대 이지수 사외이사 선임

LS 매년 5% 이상 배당금 증액

SK하이닉스,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들이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기업의 미래 성장 전략과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 SK하이닉스, '풀 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 청사진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제7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물량이 이미 완판됐다"며 "내년 물량도 상반기 내 고객사와 협의해 매출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3E 12단 제품을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세계 최초로 6세대 HBM4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는 인증 절차에 들어갔다. 고객사 인증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HBM4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HBM 외에도 소캠(SoCAM), 쿼드러플레셀(QLC) 기반 고용량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다양한 제품군의 경쟁력을 강화해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방침이다. 기기내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27일 경기 이천 본사에서 열린 제 7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장형(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메모리인 LPCAMM 2, UFS 5.0 등 차세대 제품군도 확대해 '풀 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곽 사장은 "올해 HBM 시장 규모는 지난해 대비 9배, AI 서버용 SSD 시장도 3.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HBM 제품은 높은 투자 비용과 긴 생산 기간이 요구되므로 고객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판매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매출 66조1930억원, 영업이익 23조4673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전체 D램 매출에서 HBM 비중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는 미래 AI 메모리 수요에 대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본격화하고, 단계적으로 클린룸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곽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한명진 SK스퀘어 대표이사의 기타 비상무이사 신규 선임 안건 등 4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주총 종료 후 열린 이사회에서는 한애라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회사 설립 이후 첫 여성 의장인 한 의장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으로 활동 중이다.

◆ HD현대, AI·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도전

HD현대는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제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룹의 미래 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



명노현 LS 부회장이 27일 용산LS타워에서 제56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LS

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4개 안건이 가결됐다.

HD현대는 이날 이지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했고, 지난해 매출 67조7656억원과 영업이익 2조983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HD현대는 주총에서 중장기 배당정책에 따라 주당 900원의 결산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분기 배당을 포함하면 연간 배당금은 총 3600원이다. 향후 지속해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오갑 회장은 "지난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그룹 시가총액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성장하는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지속해 100년,

200년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LS 명노현 부회장 "IPO 등 주주 소통 강화"

LS명노현 부회장은 서울LS용산타워에서 열린 정기주총에서 최근 불거진 중복 상장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명 부회장은 "영업이익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기는 성과에도 최근 중복 상장 논란 등으로 주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그간 계열사들의 상장 등 재무전략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해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LS는 현재 자회사 LS이링크, LS과위솔루션(구 KOC전기), 에식스솔루션즈의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자회사가 상장되면 모회사인 LS의 기업가치가 하락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LS는 주주환원 전략으로 매년 5% 이상 배당금을 증액해 오는 2030년까지 배당금을 30% 이상 늘리고, 정기 배당 외에도 회사 자원 범위 내에서 중간 배당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기업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명 부회장은 "주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공개(IPO) 추진 시 주주 및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차현정·이혜민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구광모 회장 "절박감 갖고 변화 이루어야" '소캠·양자' 등 글로벌 첨단산업 구조재편 예고

LG그룹 사장단 회의

구 회장, 경영환경 위기 극복방안 논의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7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절박감을 갖고 과거의 관성, 전략과 실행의 불일치를 떨쳐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회장은 이날 최고경영진들과 함께 경영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회장은 구분부 선대회장의 2017년 신년사를 언급하며 "그 당시에도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경제 질서가 재편되던 시기였다"며 "그때도 경쟁 우위 지속성과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사업 구조와 사업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경영환경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났으나, 사업 구조 변화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모든 사업을 다 잘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기에 더 더욱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와 진입장벽 구축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설정, 자본의 투입과 실행의 우선순위가 일치해야 한다"며 "미래 경쟁의 원천인 연구개발(R&D)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사장단 워크숍에 참석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LG그룹

그는 또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라며 "절박감을 가지고 과거의 관성과 전략과 실행의 불일치를 떨쳐내자"고 사장단에 변화를 촉구했다.

구 회장은 일부 사업이 양적 성장과 조직 생존 논리에 치중해 기대한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의 78주년 창립기념일에 열린 이번 회의에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영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LG는 분기마다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 향후 전략적 방향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vem@

젠슨 황, 자율주행 등 미래 승부처 꼽아 삼성·SK 등 글로벌 기술개발 경쟁 격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시장 판도가 뒤바뀌지 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양자컴퓨터에 대한 비관론을 철회하는가 하면, HBM을 대체할 차세대 AI 메모리인 '소캠'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승부처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AI 개발자 콘퍼런스(GTC)에서 'AI 반도체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AI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소캠(SOCAMM)을 비롯 ▲양자컴퓨터 ▲AI 기반 자율주행차 ▲HBM4 등이 꼽히며 시장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승부처로 떠올랐다.

실제 젠슨 황 CEO는 이날 "엔비디아가 더 이상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기업이 아니며, AI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기업"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물론 네트워킹 장비와 냉각장치에 이르기까지 AI 밸류체인에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업이라는 뜻이다.

이에 차세대 메모리 모듈 규격인 '소캠'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소캠은 기존 AI 가속기의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개발됐다. 소캠은 마이크로이 업계 최초로 양산에 나서며 한발 앞서고 있다. 마이크론은 지난 18일 "엔비디아와 협력해 저전력 D램(LPDDR5X) 메모리 솔루션인 소캠을 개발했다"며 "전력 효율성과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여 AI 처리에 적합한 소캠을 대량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소캠을 상용화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생산 단계는 아니다. SK하이닉스는 GTC서 소캠의 시제품을 처음 공개했으며 삼성전자도 지난해 뉴스룸 인터뷰에서 "고객사와 소캠 검증 진행 중"이라고 밝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양자컴퓨터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꼽히고 있다. 황 CEO는 하버드대·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협력해 양자컴퓨팅 연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자체적으로 양자컴퓨터를 제조하지 않지만, 양자컴퓨팅을 지원하는 가속컴퓨팅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초 황 CEO는 "쓸 만한 양자컴퓨터가 나오려면 적어도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같은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어 그는 "내년에는 양자역학 분야에서 놀라운 혁신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몇 년 안에 휴머노이드도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황 CEO는 GTC서 기자들과 만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돌아다니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는 5년 뒤의 문제가 아닌 몇 년 뒤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용 AI 반도체 부품도 '계엄체인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AI 기반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국내 전자 부품사는 물론 엔비디아도 관련 고부가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최근 자율주행차용 종합 안전시스템인 '엔비디아 헤일로스(NV IDIA Halos)'를 발표했다. 헤일로스는 엔비디아의 자동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안전 솔루션과 자율주행차 안전 AI 연구를 결합한 시스템이다.

한편, 황 CEO가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AI 칩인 '루빈 시리즈'를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HBM4'가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루빈 시리즈에는 HBM4가 처음 탑재되며 후속 모델에는 HBM5(8세대) 탑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HBM4분야는 SK하이닉스가 올해 하반기 HBM4 양산을 목표로 하며 한발 앞서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오영주·최승재, 소상공인 해법 찾는다… “규제개선·AI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 옴부즈만〉

뜻 장관, 충남서 도소매업 애로 청취
최 옴부즈만, 서울서 소상공인 간담회
정책 반영·규제 개선에 최선 강조
민주당, 소공연 간담회 하루 전 취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나란히 소상공인 현장에서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라이콘타운 아산점에서 2025년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정책협의회는 이번이 15번째다. 협의회에는 충북·충남·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광역지회장 및 기초 지부장,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열린 ‘제3회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국수퍼마켓협동조합 및 한국유통서비스산업협동조합 단체장 등이 참석했

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모두 전 업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이 화두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도소매업 기업은 약 200만개로 전체 소상공인 가운데 26.2%를 차지한다.

관련 종사자수도 약 270만명으로 전체의 25.1%에 이른다.

참석자들은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인하, 공동물류 창고 설립, 소상공인 AI 경영지원 등 다양한 의견들을 건의했다.

오 장관은 “올 상반기 권역별 릴레이 방식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좀 더 깊은 현장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오 장관과 별도로 최승재 옴부즈만도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와 올해 첫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과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유오 연구소장 그리고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대한속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식업중앙회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 대한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입법취지와 기기 공급 여건 등 현장 준비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E-9) 취업범위 확대 ▲숙박업 일회용품

규제 완화 ▲‘문화누리카드’ 사용자 범위 확대 ▲목욕탕 점포철거비 차등지원 기준 마련 ▲노래연습장 주류반입 묵인 금지의무 면책 요건 신설 ▲노래연습장 업 폐업 신고기한 연장 등의 건의가 나왔다.

최 옴부즈만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서울, 대구, 인천 등에서 올해 4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는 중소기업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한 ‘S.O. S. Talk’를 대구, 전주, 강원 등 전국에서 총 12회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가성비 하이브리드’… KGM, 연비·가격 다 잡았다

토레스로 HEV 시장 진입

직병렬 듀얼모터로 연비 41% ↑
EV주행 비중 94%, 정속성도 잡아
가솔린 대비 인상폭 300만원대

KGM모빌리티(KGM)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장에 ‘토레스 하이브리드(HEV)’로 도전장을 던졌다.

국내 하이브리드 시장은 매년 50% 가까이 성장하며 국내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의 판매 비중은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30%를 넘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KGM가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출시한 것도 시장 흐름에 맞춰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함이다.

KGM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KGM 익스피리언스센터 강남점’에서 토레스 하이브리드 미디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노영식 KGM 국내상품팀 팀장



토레스 HEV.

은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준비하면서 초반에는 절박함이 컸지만 이제는 자신감으로 바꿨다”며 “이번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연비효율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KGM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적용한 기술은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직병렬 듀얼 모터가 장착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우수한 연비 효율과 뛰어난 주행 성능을 확보했다. 토레스 가솔린 모델 대비 41% 향상된 복합 연비 15.7km/L(18인치휠 기준/도심 16.6km/L)를 달성했다.

전용 변속기인 e-DHT는 하이브리드

드 전용 듀얼 모터 변속기로 ▲EV 모드 ▲HEV 모드(직병렬) ▲엔진 구동 모드 등 다양한 운전 모드 구현이 가능하며, 도심 주행 시 EV 모드로 94%까지 주행이 가능해 전기차 수준의 정속성을 제공한다.

KGM은 첫 하이브리드 차량인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가격 경쟁력을 강점으로 꼽았다.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판매 가격(개소세 및 친환경차 세제혜택 적용)은 ▲T53140만원 ▲T73635만원으로 가솔린 모델 대비 각각 343만원, 453만원 인상됐다. 타사의 경우 가솔린 모델 대비 512만원 인상(평균 474만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했다.

노 팀장은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경쟁 차량에 비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소형 하이브리드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중형급 하이브리드”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유진기업

신규 대표에 최재호 선임



유진기업이 신규 대표이사(사진)을 선임했다. 27일 유진기업에 따르면 선임 최재호 대표는 1996년 유

진기업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전략기획담당과 관리본부장, 사업총괄 등을 역임하며 회사의 전략 수립과 실적 개선을 이끌어 왔다.

최 신입 대표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전북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최고경영과정(AIM)을 수료했다. 유진기업 내에서는 뛰어난 전략관리와 재무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유진기업은 이번 최 신입 대표 선임을 통해 건설업계 불황 속에서도 위기를 돌파해 미래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소상공인 이커머스 셀러 물류비 부담 경감 나서

CJ대한통운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손잡고 소상공인 이커머스 셀러들의 판매 확대 및 물류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한유원의 ‘2025년 소상공인 스마트물류 지원사업’ 수행사로 선정돼 중소 셀러를 대상으로 e-풀 필먼트 입점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측은 총 250개사를 모집해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셀러이며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전자식 4WD 기본”… 기아 타스만, 정통픽업 신기술 심었다

‘더 기아 타스만 테크 데이’ 개최

기아가 브랜드 최초의 정통 픽업 트럭 ‘더 기아 타스만’에 적용된 신기술을 공개했다. 타스만은 새로운 픽업 플랫폼을 적용했으며 뛰어난 도하·적재 성능을 확보해 정통 픽업 트럭의 특성을 완벽하게 구현했다.

기아는 2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더 기아 타스만 테크 데이’를 개최하고, 타스만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이날 최동호 MLV프로젝트1팀 책임 연구원은 “‘픽업의 본질,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다’라는 슬로건 하에 픽업 트럭의 본질에 집중하되 기존 픽업의 약점인 패밀리카의 안락함과 첨단사양 적용했다”고 말했다.

타스만 플랫폼에는 2개의 굵은 프레



기아의 첫 픽업트럭 타스만. /양성운 기자

임이 크로스멤버로 연결된 형태의 ‘보디 온 프레임’을 도입해, 최대 700kg 적재 중량과 3500kg 견인 성능에 걸맞은 내구성을 확보했다.

특히 ‘보디 온 프레임’ 구조는 사다리 모양의 강철 프레임에 파워트레인 과 차체를 얹는 방식으로 일반 승용차 대비 무거운 하중을 더 잘 버틸 수 있어 뛰어난 적재 능력과 높은 내구성, 탄탄한 힘로 주행 성능을 구현하는 바탕이

된다.

기아는 800mm 깊이의 물을 시속 7km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도하 성능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브랜드 최초로 공기 흡입구를 측면 펜더 내부 상단 950mm 높이에 위치시켰으며, 흡입구의 방향 또한 차량 진행 방향과 반대로 배치해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했다.

기아는 적재함의 크기와 강성을 최적화하고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적용해 적재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또 강화된 오프로드 주행 성능과 토잉(견인) 특화 기능도 탑재했다.

타스만은 엔진 구동력을 전·후륜 구동축에 전달하는 부품인 ‘2속 ATC’를 적용해 다양한 주행 상황에 최적화된 구동을 제공한다. 구동 모드에 따라 연비 주행부터 극한의 지형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홈쇼핑

K-푸드 해외진출 지원

홈쇼핑이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고 있다.

홈쇼핑은 수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품을 발굴해 ‘K-푸드’, ‘K-뷰티’ 수출을 집중 공략한 결과 올해 1~3월까지 누적 140만 달러(한화 약 20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홈쇼핑 중소기업지원본부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홈쇼핑은 또 오는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도 ‘홈쇼핑 기업관’을 운영하며 20여개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AI 춘추전국시대’ 속 모델 선택법... “필요한 기능 따라 써야”

챗GPT 복잡한 작문·철학적 논의
클로드 장문 문맥·코딩 능력 ‘강점’
코파일럿 정보 검색·문서 작업
제미니 구글 연동·멀티모달 분석



ChatGPT에 의해 생성된 ‘AI 모델 선택에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 이미지.

‘기술 빅뱅’ 챗GPT의 출연 이후 쏟아진 인공지능(AI) 모델, 어떤 모델을 써야할까. 답은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에 따라 다르다’이다.

27일 <메트로경제신문>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AI 모델 챗GPT, 클로드, 코파일럿, 제미니, 퍼플렉시티, 딥시크, 그록3과 한국의 대표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하고 활용법을 추천해본다.

◆**챗GPT(ChatGPT)**
오픈AI가 개발한 대표적인 생성형 AI로, 탁월한 언어 능력과 창의성으로 복잡한 글쓰기와 철학적 논의에 강하다.

pdf·hwp 파일 등 다양한 포맷을 읽을 수 있으나, 속도가 다소 느리고 교차 검증이 필요한 허점도 있다.

▲추천 활용 분야 : 콘텐츠 기획, 기

획서 작성, 각종 문서파일 요약

◆**클로드(Claude)**
미국 앤트로픽이 개발한 AI로, 장문 문맥 유지력과 코딩 능력이 뛰어나 GP T를 능가한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한국어 맥락 이해가 부족하고, 창의적 글쓰기나 의견 제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한계가 있다.

▲추천 활용 분야 : 회의록 등 장문 요약, 기획서 정리, 공식적 문서 작성

퍼플렉시티 빠르고 정확한 요약
딥시크 수학·코딩 등 기술 뛰어나
그록3 X 연동... 밈·유머에 강해
하이퍼클로바X 韓 기반 응답 특출

◆**코파일럿(Copilot)**

마이크로소프트가 GPT와 연동해 오피스 제품에 통합한 AI로, 최신 정보 검색과 문서 작업에 특화돼 있다. 정확하

고 빠른 응답이 가능하지만, 무료버전은 기능이 제한적이고 프롬프트 조율에 신경 써야 한다.

▲추천 활용 분야 : 보고서 초안, 매일 요약 및 회신, 트렌드 조사

◆**제미니(Gemini)**

구글이 개발한 AI로, G메일·드라이브 등 자사 서비스와의 연동성과 멀티모달 분석 능력이 강점이다. 검색 기반 응답이 정확하지만 한국어 감성과 창의력 면에서 타 모델 대비 부족한 점이 있다.

▲추천 활용 분야 : 문서 분석, 실시간 트렌드 조사, 구글 서비스 기반 작업

◆**퍼플렉시티(Perplexity)**

검색형 AI로, GPT 기반 응답에 출처를 명시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 요약이 가능하다. 서사적 글쓰기나 통찰에는 약하며 반복적 답변이 많고 깊이 있는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추천 활용 분야 : 리서치 초안, 참고자료 정리, 기사 개요 구성

◆**딥시크(DeepSeek)**

중국발 오픈소스 AI로, 수학·코딩 등 기술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며 빠

르게 성장 중이다. 창의적 글쓰기와 한국어 이해는 미흡하고, 긴 문서 분석이나 감성 응답엔 약점을 보인다.

▲추천 활용 분야 : 프로그래밍 실습, 수학 풀이, 기술 리포트 정리

◆**그록3(Grok 3)**

일론 머스크의 xAI가 개발한 AI로, X(구 트위터)와 연동돼 인터넷 밈과 유머에 강하다. 정확성과 논리성은 부족하고 한국어 성능이 낮으며, 비윤리적 콘텐츠 생성 가능성도 있다.

▲추천 활용 분야 : 소셜 콘텐츠 기획, 유머 기반 실형, 실시간 이슈 반응 분석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

네이버가 개발한 한국어 특화 AI로, 한국어 문맥 이해와 국내 문화 기반 응답에 강점을 보인다. 고차원적 사고나 창작, 긴 문서 요약에선 한계를 드러내며 글로벌 모델 대비 정밀도가 낮다.

▲추천 활용 분야 : 한국어 요약, 지역 기반 정보 탐색, 고객 응대 시나리오 작성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T “ESG에 AI 적용... 지속가능 성장 추구”

신비전 ‘두 더 굿 에이아이’ 공개
AI로 통신·기술 경쟁력 높이고
신뢰·안전성 확보, 사회 기여 전략

SK텔레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새로운 비전 ‘DO THE GOOD AI(두 더 굿 에이아이)’를 공개했다.

SK텔레콤은 27일, ESG 전 영역에 AI를 적용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DO AI’, ‘T.H.E. AI’, ‘GOOD AI’로 구성된 ESG 전략을 발표했다. ‘DO AI’는 AI로 통신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T.H.E. AI(By Telco, For H

umanity, With Ethics AI)’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GOOD AI’는 AI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SKT는 환경 부문에서 AI 기반 네트워크 설계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를 실현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고객 품질 변화 예측, 최적 위치에 장비 배치, 트래픽 부하에 따른 전력 소비 조절 등으로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분리 배출 가이드 제공 등 순환경제 실현 방안도 준비 중이다.

사회 부문에서는 AI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차단,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

스 ‘케어비어’, AI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약 4만5000명에게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단 운영, AI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지난해 선보인 AI 거버넌스 ‘T.H.E. AI’를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피라미드 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SKT는 국내 통신사 최초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을 취득했으며, 글로벌 사업자 및 기관들과 함께 AI 거버넌스 도입 및 활용 방안도 모색 중이다.

/김서현 기자

KT, ‘지니 TV’ 마케팅에 AI 기술 도입

오리지널 콘텐츠 ‘신병 3’ 홍보영상

KT는 27일, 오는 4월 7일 첫 방송되는 지니 TV 오리지널 콘텐츠 ‘신병 3’의 마케팅에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KT는 ‘신병 3’ 홍보 영상 일부를 AI 기술만으로 제작했다. 기존 시리즈의 주요 장면을 압축한 몰아보기 영상과 신작 하이라이트 숏폼 영상이 AI를 통해 자동 편집됐으며, 온라인과 SNS 채널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KT는 이번 제작 방식으로 영상 제작 시간과 비용을 약 90% 이상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KT는 자회사인 KT ENA 및 KT 스튜디오지니의 유튜브 콘텐츠에도 AI 기반 편집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편집, 영화·해외 시리즈 숏폼 자동 생성 등이 포함된다.

AI 편집 시스템은 콘텐츠의 스토리 라인을 기반으로 클립형, 인물형, 행동



KT가 4월 7일 첫 방송되는 지니 TV 오리지널 ‘신병 3’의 마케팅에 AI 기술을 접목한다. KT 직원이 ‘신병 3’을 소개하고 있다. /KT

형 등 다양한 형식의 숏폼 제작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행동형’은 특정 동작 중심으로, ‘인물형’은 특정 인물 시점에 맞춰 편집된다. KT는 세로형 숏폼에 특화된 자체 기술 ‘포커스뷰’를 적용해 주요 피사체를 자동 식별하는 기능도 도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KT가 신설한 AI 미디어 콘텐츠 조직 ‘AI 스튜디오 랩’이 주도하고 있으며 KT는 기술 지원을, 미디어 계열사는 기획·제작·유통을 맡는다.

/김서현 기자

시프트업, 직원 평균연봉 ‘1억3200만원’

성과 따른 보상 통해 직원 역량 발휘

국내 주요 게임업체 기업들의 직원 평균 연봉을 분석한 결과 시프트업이 1억3200만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크래프톤 1억900만원, 엔씨소프트 1억800만원대의 연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프트업은 지난해 319명의 직원들에게 1인 평균 1억3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평균 근속년수는 3.1년이다.

시프트업은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 임직원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의 인재 중심 경영 철학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올해 초 신년 행사에서 “회사 성장에 기여한 구성원들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통해 회사 성과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년엔 ‘니케: 승리의 여신’ 출시 이후 개발팀은 물론 전 직원에게 1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3차례에 나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300여명에게 1000만원이 든 신용카드도 지급한 바 있다.

또 ‘시프트업 라이즈업: The Origin’에서는 인재 격려의 일환으로 전 직원에게 500만원의 상여금과 플레이스테이션5 프로(PS5 프로)를 지급했다. 당시 직원 수는 약 320명으로, 앞서 상여금과 선물의 총액은 약 2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시프트업은 올해 니케의 중국 시장 진출과 스텔라 블레이드의 PC 버전 출시를 통해 해외 시장 확장에 나선다. 중국 시장의 경우 지난 1월 9일 사전 예약을 시작한 이후 2월 20일 기준 사전 예약자가 300만명을 넘어섰으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시프트업은 전 직원들에게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를 지급했다. /시프트업

2위는 크래프톤이다. 총 1903명의 직원에게 1인 평균 1억900만원을 지급했고 평균 2.9년을 근속했다. 지난해보다 직원 수가 324명 늘었고 평균 급여액은 1100만원 증가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펍지의 대항행에 채용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임금을 늘리기도 했다.

3위는 엔씨소프트다. 엔씨는 1억800만원으로 연봉은 전년보다 100만원 증가했지만 직원은 회사 내부 구조 조정으로 1200명 가량이 줄었다.

/최빛나 기자 vitna@

슈퍼브에이아이 “AI로 관중 혼잡도 분석”

수원 KT 위즈파크에 시스템 구축

비전 AI 올인원 솔루션 기업 슈퍼브에이아이는 KT 위즈의 홈구장인 수원 KT 위즈파크에 AI(인공지능)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KT의 신규 AI 브랜드 출시에 맞춰 수원 KT 위즈파크를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로 새로 단장하는 ‘KT AI 스타디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국내 프로 스포츠 경기장에 AI 혼잡도 분석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솔루션은 슈퍼브에이아

이의 비전 AI 기술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적용한 사례로, 2025 KBO 리그 시즌 개막에 맞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슈퍼브에이아이가 개발한 AI 혼잡도 분석 시스템은 야구 경기장 내 설치된 50여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구역별 관중 밀집도를 파악하고, 이를 전광판과 관리자 대시보드에 직관적으로 표시한다. 관중 수에 따라 구역별 혼잡도를 초록색(여유), 노란색(보통), 빨간색(혼잡)으로 시각화해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한다.

/김현정 기자 hjk1@

올해 국채발행 역대최대 전망 회사채 시장 ‘돈맥경화’ 공포

산불피해 지원 등 추경 목소리 커져
20조 추경시 적자국채 15조 예상
기업, 회사채 통한 자금조달 영향

LG화학이 지난 1월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진행한 수요예측. 1조 6750억원의 주문이 몰렸지만, 대다수는 3년물(1조2650억원) 수요였다. 대한항공도 모집액(1500억원) 대비 3배 넘는 주문이 3년물(5790억원)에 집중됐다. 5년물에는 500억원 모집에 810억원 주문을 받는 데 그쳤다. 큰 손 투자자들이 회사채시장과 기업의 ‘장기 전망’을 어렵게 본다는 의미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계의 걱정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다. 국채 발행 증가로 회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길이 좁아질 수 있어서다. 싸늘하게 식은 내수 경기와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기업 신용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까지 나오며 기업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와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은 38조 1999억 원으로 나타났다.

당장 2분기(3~4월) 만기도래 규모

는 17조3390억원으로 가장 많다.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13조5685억원, 7조2924억원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빚을 상환해야 하는 기업들은 고민이다. 영남지역의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지자 추경 편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채권시장 자금 가운데 상당수가 회사채보다 국채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KB증권은 20조원 규모의 추경 규모를 고려할 때 올해 적자국채 규모가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발생한 산불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추경 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올해 추정한 국세수입 규모는 38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33조 5000억원)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기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수입의 진도율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시장은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한 상황이나 적자국채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초 대비 금리 인하 기대도 다소 축소된 모습이다”이라며 “추경으로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추경으로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197조6000억원인 데다 추경과 올해 시작되는 외평채 발행까지 고려하면 200조원 중반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커질 수 있다.

통상 신용도가 높은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회사채 등 여타 채권들의 금리도 덩달아 상승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단약 추경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면 장기금리, 특히 10년물의 발행 부담으로 금리는 상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 신용 줄강등도 회사채 시장에 부담을 준다. 한국신용평가, 나이스(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3대 신평사가 작년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회사는 35개(중복 제외)였다. 올해도 홉플러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기업들은 서둘러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5년 2월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실적’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27조 5635억원으로 전달 대비 18.3%(4조 2730억원) 늘었다. 그중 일반 회사채는 10조 77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3690억원이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643.94)보다 36.79포인트(1.39%) 하락한 2607.1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16.48)보다 8.99포인트(1.25%) 내린 707.49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스

미래에셋증권, 3670억 주주환원 결정

정기 주총 개최... 총 주주환원율 40%

미래에셋증권은 27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제56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내외이사 선임,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김미섭 부회장, 허선호 부회장, 전경남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송재용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이점마, 석준희 사외이사가 재선임되고, 문홍성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이익배당도 승인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연결기준자본기 12조263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조1881억원(전기 대비 약 128% 증가), 당기순이익은 9255억원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전기 대비 178% 증가)으로 집계됐다. 배당은 총 1467억원(보통주 250원, 1우선주 275원, 2우선주 250원),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2203억원으로 결정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합한 주주환원총액은 3670억원으로, 총 주주환원율은 약 40%를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zellkova@

배당株 단기매매 ‘널뛰기’... 기업가치 발목

배당락으로 인해 주가 변동성 커져
‘기업, 미래 투자에 집중할 수 있어야’

3월 배당 시즌을 앞두고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배당락과 단기 매매로 인한 주가 변동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기업들의 배당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배당보다는 성장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다우기술(18.13%), 한세예스24홀딩스(7.59%), 동국씨엠(11.11%), 광주신세계(2.58%) 등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해당 종목들은 모두 이달 31일을 배당기준일로 두고 있으며, 높은 배당률이 기대됨에 따라 투심이 몰리고 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배당기준일 1거래일 전부터는 배당락 위험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배당 액수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당금 회수를 노리고 단기 매매에 나서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코스피는 44개 종목이 한번에 배당락일을 맞이하면서 지수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시가총액 10위 내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28일 지수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2월 28일을 배당기준일로 두고 있던 SK하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배당주에 몰리는 개미(개인 투자자)들’ 이미지.

이닉스(-4.52%) 현대차(-3.74%) 네이버(-5.48%) KB금융(-3.09%) 등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네이버는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거래일 동안 10.58% 하락하면서 과도한 낙폭을 보이기도 했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러한 현상들은 시장이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 가능성보다 단기적인 현금 배당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배당을 실시할 시, 미래에 대한 투자자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아마존 등이 배당보다는 미래 투자 방식으로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테슬라는 서학개미(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최선호 종목으로, 배당보다는 기업의 모든 자금을 성장에 재투자한다. 주주에게 기업가치 상승으로 보답한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아마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메타(페이스북) 등이 배당보다는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하며 주주환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주주친화 정책은 배당 확대다. 한국경영학회에서는 일률적인 방식보다는 세제 혜택, 인수·합병(M&A) 유도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세미나에서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성장성이 각기 다른 산업과 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배당 정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투자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기관투자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주주보호·주주환원 등을 확대시키는 것이 국내 기업가치 성장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단,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종은 자본투자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은 27.2로 분석대상 국가 16개국(G20 중 일부 제외)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주주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며 “자본적지출 확대를 통한 주주이익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가 병행되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한공회, 산불피해복구 성금 1억 기탁

최운열 회장 “일상회복 도움 되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구호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탁한 구호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 긴급구호 및 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 및 주거 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열 회장은 “최근 영남지역에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보신 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계업계의 마음과 뜻을 모아 기탁한 구호성금이 전달되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한화투자증권 “현대차 목표주가 31만원”

분기 최대매출 전망... 매수 의견 유지

현대자동차의 1분기 매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화투자증권은 27일 현대차에 대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 달성이 기대되고, 대미 투자 발표로 대외 불확실성을 정면 돌파해 긍정적인 요인이 주가에 반영될 차렷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1만원을 유지했다.

김성래 연구원은 “현대차는 내연기관차(ICE) 대비 평균판매단가(ASP)

가 높은 친환경차(xEV) 비중 확대 등으로 매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또한 “고환을 추세가 지속되며 매출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1분기 매출액은 44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5% 증가해 분기 단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며 “영업이익은 3조5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0.2% 감소하나, 연초 추정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정윤 기자

2차 베이비붐, 지방 정착 길 연다 농어촌 경제·일자리 활성화 '총력'

농식품부, 2차 베이비붐 귀촌 유도 954만명 정년세대, 농촌 유입 기대 특화산업·관광벨트로 지역경제 재건 귀촌청년 농지·어선·창업자금 지원 공공서비스·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정부가 정년퇴직 등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붐 세대' (1964~1974년생)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또 생활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공공 및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통해 도농 간 삶의 질 격차를 대폭 줄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2025~2029년) 제5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및 세부계획 수립에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21개 부처·청 합동이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농어촌 인구 유입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의 쾌적한 환경, 도시 대비 저렴한 토지 비용, 이른바 4도3촌(도시에서 나출, 농촌에서 사출) 문화의 확산 등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해, 2차 베이비붐 인구가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 수준이고,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705만 명)에 비해서도 35%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1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에 따라 12대 주요 과제 및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한·철레 자유무역협정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 국내의 한 농산물 재배 현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 갈무리

(FTA) 발효를 계기로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 후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으며 총 178조 원을 투입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인구 2000명 미만의 읍·면을 의미하는 인구 과소지역 수가 392개소로 2000년 177개에서 배이상 늘었다. 국가 전체적 인구감소 전망과 청년층의 도시 쏠림 및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이 우려되고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그간 4차례의 기본계획에서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부족한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도·농간 삶의 질 격차가 해소돼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자리 부족 등에 따라 청년층의 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공공·생활서비스는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기본계획과 달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한다.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에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

를 개선한다. 또 소멸위험 농촌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범제화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K-미식벨트(농식품부), 동서트레이(산림청)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한다. 현재 7개소인 세계중요 농어업유산에 5년 내 14개소로 늘려 관광 자원화하는 'K-헤리티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마을어장·양식장, 어선 및 초기 정착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대상 법률·세무 컨설팅 등 경영역량 강화, 농업인 유형별 기술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의 이전·철거 및 공간 재생 지원 대상을 올해 112개소에서 2029년까지 172개소로 확대한다.

또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농어촌의 특색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한다. 비문해·저학력 고령층 대상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 복합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미래 인재 위한 최적 환경 만들 것”

최상목 기재부 장관, 오찬 간담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인재 투자가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신세계아이앤씨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9곳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또 “최근 청년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의 인재에 대한 투자가

더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토양을 만드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도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은 “일지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고용부는 우수기업 모델을 확산·지원하기 위해 지방 관서에서 지역 내 우수기업을 1대1로 전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컨설팅 사업을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으로 개편·통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도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제작년 임금근로자 금융회사 빚 5150만원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발표

지난 2023년 기준 직장인이 금융회사에 진 빚이 1인 평균 5150만 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은 전년 대비 0.7% 늘어난 51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대출은 2018년 4175만 원, 2019년 4408만 원, 2020년 4862만 원, 2021년 5202만 원 등 상승곡선을 그리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2022년에 5115만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인상 기조가 둔화한 2023년에 다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연체율은 2022년 0.43%에서 2023년 0.51%로 높아졌다. 연체율은 2018년 0.61%, 2019년 0.60%,

2020년 0.50%, 2021년 0.41%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2022년부터 2년 연속 상승 중이다.

성별에 따른 직장인 대출 평균은 남자가 6377만 원, 여자가 3717만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0.6%, 1.1% 늘었다. 연체율은 남자가 0.57%, 여자가 0.40%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1601만 원 ▲30대 6979만 원 ▲40대 7790만 원 ▲50대 5993만 원 ▲60대 3745만 원 ▲70세 이상 1853만 원으로 조사됐다. 29세 이하(-0.9%)와 30대(-0.7%)에서는 대출이 감소했지만 40대(2.0%), 50대(0.4%), 60대(0.1%), 70대 이상(1.4%)에서는 빚이 늘었다.

연령대별 연체율은 ▲29세 이하 0.49% ▲30대 0.31% ▲40대 0.46% ▲50대 0.66% ▲60대 0.86% ▲70세 이상 0.65%로 파악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라이스벨트 성과에 아프리카 '리브콜'

K-품종, 맛·수확량 모두 우수

아프리카 대륙 내 'K-라이스벨트' 사업과 관련해, 벼 수확량 증가 등의 성과가 나오면서 해당 협력사업에 합류를 희망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확량이 많은 벼 종자를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기아 종식을 최종 목표로 내걸고 벌이는 국제농업협력 프로젝트 브랜드 중 하나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신규 희망국인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3개국에 대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K-종자의 현지 적응성과 농가 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시범포 조성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품종의 수확량이 현지 품종보다 23% 많게 나타났다. 또 재배 관리가 쉽



가나 농가에 생산성이 좋은 벼 종자가 보급되고 있다. /농식품부

고 병해충 저항성이 강하며 맛과 향이 현지 품종보다 우수하다는 현지 농민들의 평가가 나왔다.

시에라리온의 자카리아위 아흐메드 잘로 농업식량안보부 국장은 “이번 종자 시범포 사업을 통해 K-품종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돼 시에라리온의 식량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전, 고졸 문 넓힌다... 3년간 300명 채용

한전-교육부, 고졸 채용 10배 확대 입사 후 학사학위 취득까지 지원 직업계고 출신에 전형 가점 부여

한국전력이 고졸 인재 채용을 10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입사 후 학사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27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과 교육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졸 채용 확대 및 경력개발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전과 교육부는 △고졸 채용 대폭 확대 △직업계고 취업 교육을 통한 입사 후 학사학위 취득을 포함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등 고졸 인재의 채용부터 경력개발 과정 전반에 대해 상호 협

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3개년간 총 300개(제한채용 170명, 인턴 130명)의 고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졸 인재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 고졸 인재 채용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87명을 채용하는 등 2022년~2023년 연간 10명 안팎이던 고졸 채용 인원을 향후 3개년 간 연평균 100명 수준으로 10배 가까이 확대한다.

또 한전과 교육부는 이날 협약에 이어 공동 채용설명회를 개최, 향후 교육부 '고졸만집' 시스템을 활용한 채용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추천한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고졸 에너지인재 취

업교육'을 시행, 우수 수료자에 대해 필기전형 가점(3~5%)을 부여해 채용 시 우대하기로 했다.

한전은 특히, 단순한 고졸 채용 확대를 넘어 입사한 고졸 사원의 역량 강화와 경력개발을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를 올해 신규 개설했으며, 학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은 “한전은 학력 중심 사회에서 선취업·후진학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눈 덮인 길을 내딛는 첫걸음의 마음으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연계통합 미들웨어·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METABUILD



서울시, 준공지역 용적률 '최대 400%'... 개발 활성화 속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공포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
면적제한 없이 개발방식 유연 조정

서울시가 서남권 등 준공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등 개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돼 조례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한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했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공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적률 상한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장 비율이 30% 미만 구간에서 산업시설 확보 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용적률이 적용되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간을 세분화하고 용적률을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비율(10%~50%이상)에 따른 구간별 허용 용적률은 최소 15%p에서 최대 30%p까지 상향 조정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침체됐던 준공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용산국제업무지구' 1호 필지, 한전에 공급

특고압 변전소 2곳, 지하 이·신설
지상엔 업무시설 등 도입·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이 예정된 20개 필지 중 '제1호' 사업 밀그림이 나왔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부지공급·복합개발계획 수립을 병행, 속도감 있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연내 착공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탄생시키기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제1호 필지'를 한국전력공사(한전)에 공급, 복합개발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올해 말 도로, 공원 등 부지조성 작업 착공을 시작으로, 분양받은 민간 등이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면 2030년대 초부터 기업과 주민이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건축물 용도와 밀도 규제가 없는 화이트존인 '도

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고 100층짜리 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모든 필지의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성공적으로 발돋움하도록 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시는 최고 100층 랜드마크를 비롯해 대규모 업무시설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2031년 이후에는 현재 운영중인 154kV(킬로볼트) 규모의 특고압 변전소 1개소 외 동일급 변전소 1개소에 대한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요도로망에 근접하면서 주거지와 떨어져 전력망 설치가 용이한 필지를 전력공급부지로 한전에 공급, 특고압 변전소 2개소를 지하에 이·신설하고 지상은 업무시설 등을 도입·개발하는 것이 복합개발 제1호 내용이다. 울

해 중 한전에서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개발사업을 가시화하는 것이 목표다.

복합개발 '제1호' 필지가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자가 용산구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각종 행정절차 후 올해 10월 실시계획 인가 완료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기반시설 착공 및 필지 분양을 추진하며 신규 변전소 전력 공급은 2031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필지 공급의 시발점으로,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부지공급·부지 복합개발 계획을 병행 추진해 기반시설을 조속히 착공하겠다"라며 "나아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전력 신기술 도입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극대화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선도모델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덕성여대, 특수교육 AI 에듀테크 역량 강화

SeeD 특수교육디지털교육협 '맞손'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 산학협력단은 지난 14일 차미리사관기념관에서 (사)SeeD 특수교육디지털교육협회(회장 안지훈)와 특수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 및 에듀테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주연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와 안지훈 SeeD 특수교육디지털교육협회 회장이 참석해, 양 기관의 협력 방향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양측은 특수교육에서의 AI 및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연구와 개발을 중심으로 협력하며, 특히 디지털 교육자료의 개발 및 적용 연구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덕성여자대학교 박주연 교수(왼쪽)와 SeeD 특수교육디지털교육협회 회장 안지훈(오른쪽)이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덕성여대

이에 따라 양 기관은 ▲AI 및 에듀테크 관련 연구 및 개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특수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실증 연구 ▲기타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기업에 600억 지원

중소 기후위기 대응 특별 금융지원

경기도가 기후테크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을 위한 총 600억 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 금융지원'을 28일 출시한다.

기업은 최대 8년간 8억 원까지 경기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자금 100% 보증과 함께 최대 연 3%p 추가 이자 감면을 지원받게 된다.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기업 입장에서 큰 장점이다.

특별 금융지원은 지난해 출시 당시 817개 기업에 총 1000억원 보증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RE100 정책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 '경기RE100 산업단지'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지원 분야를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일반지원'과 '특별지원'

으로 구분된다. '일반지원' 분야에는 ▲태양광기업 100억 원 ▲에너지효율화기업 300억 원 ▲1회용품 대체제 제조기업 60억 원 ▲기후테크 기업 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지원 대상기업은 최대 5억원, 상환기간 5년, 이자 2%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용자가 제공된다.

'특별지원' 분야는 ▲경기RE100 산업단지(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되는 전기를 단지 내 공장 외 부 기업에 공급하는) 참여기업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신규 설치 예정 기업 등 RE100 실천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는 보다 확대된 조건으로 최대 8억원, 상환기간 8년, 이자 3%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서울 거주 학생, 타 시도 대안학교 가도 입학준비금 지급"

서울시교육청, 지원 조례 개정

올해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 다른 지역 대안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입학준비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개정돼 올해부터 대안교육기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신규 입학생만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신규 입학하는 학생도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입학준비금은 초등 과정 8만원, 중·고등 과정 15만원을 지원하며,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가방, 의류, 태블릿PC, 도서 등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 다른 시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입학준비금이나 교복비 지원을 학생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할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지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타 시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까지 입학준비금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안교육기관 초·중·고등 과정 신규 입학생들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북돋아주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일 논란... 가맹사업 위기감 고조

백 대표, 고가·위생 등 구설수 이달에만 두 차례 사과문 발표
상장 이후 주가 약 45% 하락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운데)가 더본코리아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백종원 대표의 대중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앞세웠던 '더본코리아'가 기업 공개(IPO) 이후 각종 논란에 휘말리며 브랜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출점 감소, 가맹점 철수, 제품 위생 논란 등 연이은 악재 속에 오너 리스크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더본코리아 산하 25개 외식 브랜드의 점포 수는 총 3066개로 전년 대비 281개 증가(10.1%)했다. 그러나 외형 성장과 달리 실질적으로 출점 수가 증가한 브랜드는 8곳뿐이며, 이 중 263개 점포가 '빡다방'에 집중됐다. '빡보이피자', '역전우동', '홍콩반점0410', '한신포차' 등 나머지 브랜드는 각각 3~40여 개 수준의 출점에 그쳤다.

특히 절반이 넘는 13개 브랜드는 폐점 수가 출점을 웃돌았다. 논란이 됐던 '연돈볼차즈'는 지난해 단 한 곳의 신규 출점도 없이 18곳이 문을 닫았으며,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노동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새마을식당' 역시

101개에서 92개로 줄었다. '고속우동', '낙원곱창', '킵반' 등은 가맹점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로 사실상 사업이 정체된 상황이다.

점포 수 성장세가 정체된 더본코리아는 연초부터 '빡햄'의 고가 논란을 시작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위생 문제, 제품 구성 논란 등 각종 이슈에 휘말렸다. 올 설 명절 당시 판매한 가공육 '빡햄'은 가격 부풀리기, 성분 함량 부족으로 질타를 받아 생산 중단까지 이르렀다. 또 2023년 출시한 갈갈 맥주는 과즙 함량 부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

재료로 만든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소비자의 신뢰를 흔드는 논란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다 액화석유가스법, 건축법, 농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며 법적 리스크까지 불거진 상태다.

가장 최근에는 더본코리아가 판매 중인 '백종원 만능볶음소스'가 홍콩산 편더글소스를 기반으로 한 '기성 소스에 물을 타서 비싸게 판매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소스가 "편더글소스 17%에 물엿, 혼합간장, 정제수 등 부재료를 혼합한 자체 개발 제품"이라고 해명했으나, 소비자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일부는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연이은 구설은 더본코리아와 협업 관계를 유지해온 파트너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편의점 CU다. CU는 지난 10년간 백종원 대표와 협업해 약 550종의 간편식을 출시했으며, 누적 판매량은 4억6000만 개에 달한다. 특히 백 대표의 간편식은 '편도족'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만큼 편의점 간편식 시장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최근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며 CU 내부에서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아직 협업을 중단하진 않았지만, 백 대표의 이미지 실추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제품 생산을 축소하거나 대체 브랜드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상장 첫날 주가가 5만1400원을 기록했지만, 최근

에는 2만8000원대로 약 45% 하락한 상태다. 브랜드 이미지에 크게 의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오너 리스크는 직접적인 사업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종원 대표는 이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발표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등 돌린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19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백 대표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들을 깊이 반성하며,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겠다"며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히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는 지금까지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그 자체로 성장해온 회사"라며 "하지만 이제는 브랜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과 경영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투명한 경영과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 4D플렉스, 전 세계에 4DX 상영관 세운다

글로벌 극장 체인 AMC 파트너십 방준식 대표 "중요한 이정표 될 것"



관을 선보인다. 새로운 상영관은 AMC의 주요 전략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시즌인 올 여름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글로벌 74개국 1211개 특별 상영관을 운영 중인 CJ 4D플렉스(PLEX)가 세계 최대의 극장 체인인 AMC 엔터테인먼트(이하 'AMC')와 손잡고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로 뻗어 나간다.

CJ 4DPLEX는 AMC와 전 세계에 65개의 스크린(SCREEN)X 및 4DX 상영관 개설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MC는 현재 전 세계 900개 극장과 1만 개의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에서 오데온(Odeon)이라는 극장명으로 6개의 SCREENX 상영관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미국과 유럽 전역에 SCREENX 상영관 25개, 4DX 상영관 40개 등 총 65개

이 중 대부분은 미국 시장에 선보일 예정으로 CJ 4DPLEX의 글로벌 확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연간 2억2500만 명의 AMC, 오데온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영화 관람 경험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MC 애덤 아론 회장 겸 CEO는 "CJ 4DPLEX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SCREENX와 4DX라는 혁신적인 영화 관람 경험을 AMC 관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며 이는 전 세계 수백

만명의 관객들에게 가장 몰입감 있고 최첨단의 영화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는 우리 노력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AMC는 영화 관람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혁신 기술과 프리미엄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업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CJ 4DPLEX 방준식 대표이사(사진)는 "세계 최대의 극장 체인인 AMC와 CJ 4DPLEX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SCREENX와 4DX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영화 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거듭하고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관객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현대백, 미식 프로모션 '다이닝 위크' 운영

식당가 유명 레스토랑 40% 할인

현대백화점이 내달 6일까지 전 점포에서 미식 프로모션 '다이닝 위크'를 연다. 앞으로도 매월 정기 행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다이닝 위크는 오후 5시 이후 백화점 식당가 내 유명 레스토랑을 4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외식 이벤트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식당가 매출이 늘면서 미식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 등 백화점 식당가 매출이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40 고객의 백화점 식당가 매출은 31.7% 늘었다.



더현대 서울 식당가에 미식 프로모션 '다이닝 위크'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미식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선호가 높아져 백화점 내 레스토랑을 찾는 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 편안한 환경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롯데마트·슈퍼 주류 행사 '宙酒총회' 개최

롯데마트·슈퍼가 2025년 상반기 주류 행사 '주주(宙酒)총회'를 내달 9일까지 개최한다. 롯데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인 롯데마트맥스를 비롯해 그랑도로 서리 도곡점, 잠원점을 포함한 롯데슈퍼 28곳에서 진행한다.

주주총회는 집 주(宙)와 술 주(酒)를 조합한 명칭으로 롯데마트와 슈퍼가 1년에 2번 진행되는 연중 최대 주류 행사다. 인기 와인을 비롯해 위스키, 사케, 맥주 등 500여 종의 주류 상품을 할인가에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SSG닷컴, 호남지역 '쓱 새벽배송' 서비스

광주 신선보장제도·정시배송 적용

SSG닷컴이 CJ대한통운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쓱 새벽배송'을 광주광역시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28일부터는 광주광역시 남구·동구 전역과 북구·서구 일부 지역 고객이 밤 10시까지 새벽배송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내달 3일부터는 광산구를 포함한 광주 전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SSG닷컴은 차별화된 장보기 상품과

서비스, 배송 경쟁력을 바탕으로 광주 지역 고객의 쇼핑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 지역 내 새벽배송 신선식품에 '신선보장제도'를 적용한다. 새벽배송으로 받아온 신선식품이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한 고객은 상품 사진을 올려 간편하게 환불받을 수 있다.

정시 배송도 보장한다. 상품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 주문 금액을 최대 10만 원까지 SSG머니로 환급해 준다.

/안재선 기자

롯데쇼핑, SBTi '온실가스 감축 목표' 승인

국내 유통업계 최초 승인

롯데쇼핑이 지난 12일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SBTi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 P), UN글로벌compact(UNGC), 세계자연연구소(WRI),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등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 민간 협력체로, 기업의 탄소 감축 목표가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한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이번 승인받은

감축 목표에는 자사에서 발생하는 직접 및 간접 온실가스 배출은 물론, 유통업 전 과정에 걸친 공급망에서의 배출까지 포함됐다.

이에 롯데쇼핑은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LED 및 냉장·냉동 쇼케이스 사용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파트너사, 물류, 고객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국산 임플란트, '기술·수출' 앞세워 글로벌 판로 넓힌다

의료기기 업계, 제품 다변화
3D 프린팅 등 신성장동력 확보 ↑
美·유럽 공략 본격화로 실적 견인
메디씨에·시지메드텍·오스템 두각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국산 임플란트'를 앞세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분주하다. 2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척추 임플란트 제조업체 메디씨에는 해외 사업에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메디씨에는 2024년 실적으로 매출은 255억원, 영업이익은 3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4%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45% 급증했다.

특히 핵심 사업인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수출 매출은 1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다. 해당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 수준이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1063만달러(한화 145억원), 2023년 1010만달러(132억원), 2022년 1074만달러(139억원) 등으로 메디씨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1000만달러대의 정형외과 임플란트 판매고를 올려 왔다.

메디씨에는 미국과 칠레 해외법인의 매출 성장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 매출은 433만달러로 가장 큰 실적을 냈고, 태국 149만달러, 칠레 12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동화약품이 2020년 인수한 메디씨에는 척추 임플란트 부문 국내 1위 기업으로, 현재 25개 국으로 수출을 전개하고 있다. 메디씨에는 척추 임플란트 제



오스템임플란트 서울 마곡 본사 전경.

/오스템임플란트

품을 비롯해 인체 전체 부위에 걸쳐 다양한 제품군을 구축했다. 국내 최초로 3D 티타늄 프린터를 활용해 광대뼈, 안와연, 사지 등에 해당하는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를 개발하기도 했다.

대웅그룹의 특수관계사인 정형외과 임플란트 연구·제조 전문기업 시지메드텍은 다양한 질환 분야에서 임플란트 사업을 다각화한다.

시지메드텍은 지난 21일부터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에 자사의 골대체제 '노보시스 트라우마' 납품을 시작했다. 노보시스 트라우마는 뼈 재생과 회복 기능을 동시에 갖춰 급성 골절, 골결손 부위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시지메드텍은 기존 척추 수술에 사용하던 제품을 골절 치료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지메드텍은 지난해 말에는 치과 디지털 임플란트 연구개발 및 생산 기업 '지디에스'를 인수했다. 지디에스

지분을 100% 취득해 치과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올해부터 치과 관련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시지메드텍은 해외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3D 프린팅 경추 수술용 케이지 '유니스페이스', 척추교정술용 스크류 '이노버스스크류' 등을 출시하는데 따른 것이다.

시지메드텍은 지난해 해외에서 131억원의 매출을 냈고, 이 중 미국 매출은 3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6% 증가했다. 수익성이 높은 미국을 중심으로 매출 개선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전체 실적으로는 매출액 346억원, 영업손실 1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0.9%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전년 16억에서 5억원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80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국내 대표 치과 임플란트 기업인 오

스템임플란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K 임플란트'의 성장가능성을 높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말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3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한해를 마무리했다. 올해도 시작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우선 오는 29일까지 독일 쾰른 국제 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년 국제 치과기자재 전시회(IDS 2025)'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에는 60여 개국의 20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오스템임플란트는 역대 최대인 70개 부스를 통해 브랜드 대표 제품을 전시하며 자사 경쟁력을 알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오는 2028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외형 측면에서도 호실적을 경신해 왔다. 특히 3년 연속 연간 매출 1조 원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은 98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국내 제약 기업 관계자는 "임플란트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핵심적인 필수재로 부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웰빙이라는 소비자 수요뿐 아니라 의료발전과 함께 여러 의료 현장에서 응용되고 있다"며 "각종 전문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기업 입장에서 세부적인 전문성을 갖춰 나가려고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



반려동물 장 & 구강 유산균 '벳플 락토덴탈' /동아제약

동아제약

'벳플 락토덴탈' 선포

1포당 총 120억CFU 균주 포함

동아제약은 반려동물의 몸 건강부터 마음 건강까지 관리하는 펫 브랜드 '벳플'에서 유산균 제품 '벳플 락토덴탈'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반려동물의 장과 구강 건강을 돕는다.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 다니스코 17종을 비롯해 구취 감소, 구강 유해균 억제, 치태 지수 감소 효과가 입증된 구강 특허 유산균 웨이셀라 사이베리아 씨엠유 등을 함유한다. 제품 1포당 총 120억CFU 균주를 포함한다.

또 항균·항염 효과를 갖춘 프로폴리스 추출 분말과 잇몸 탄력을 유지해 주는 스테이-씨50 비타민도 더해졌다.

제품은 분말 형태로 설계돼 막대형으로 포장했다. 반려동물 체중에 따라 1일 1~2포 급여하면 된다. 급여방법은 사료에 뿌려 섭취하거나 물에 녹여 먹이는 것을 권장한다. 벳플은 반려동물의 관절, 눈, 헤어볼, 요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건강 고민에 적합한 맞춤형 제품을 선보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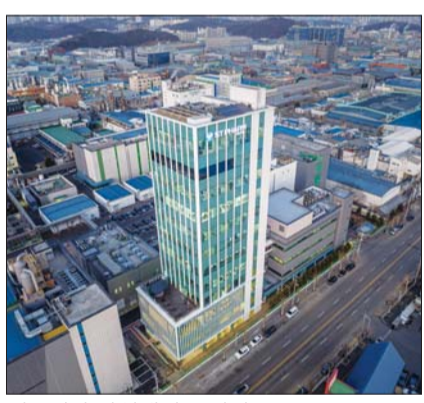
/이청하 기자

에스티팜, 1분기 수주 950억... '올리고'로 캐시카우 확보

美·유럽 제약사와 잇단 공급 계약 체결
희귀·만성질환 신약 상업화 수혜 기대

동아쏘시오그룹의 계열사 에스티팜이 올해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에스티팜은 최근 공시를 통해 2025년도 목표 매출로 3200억원을 제시했다. 에스티팜은 올해 올리고핵산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서 2000억원대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에스티팜은 올해 들어 수주



에스티팜 반월캠퍼스 전경. /동아쏘시오그룹

계약을 다수 체결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1분기 수주 계약 규모만 총 950억

원을 넘겼다.

미국 글로벌 제약사와 488만달러(약 71억원), 유럽 글로벌 제약사와 286만 스위스프랑(약 47억원) 수준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 또 유럽 글로벌 제약사와 1467만달러(약 213억원), 또 다른 유럽 글로벌 제약사와 1523만달러(약 220억원) 등의 계약 소식을 연이어 알렸다.

지난 25일에는 미국 바이오텍과 2750만달러(약 404억원)에 달하는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올렸다. 특히 이 계약은 상업화 승인을 받은 혈액암 올리고핵산치료제의

2026년 1차 원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처럼 에스티팜이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상당수 물질들은 신약 허가 및 상업화를 앞두고 있다. 미국 바이오텍의 유전성혈관부종치료제 올리고핵산치료제 신약은 올해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계약 건 가운데 한 유럽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올해 하반기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 치료제 상업화를 예상하고 있어 에스티팜은 저분자 화학합성 원료의약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한국콜마, 코스모팩 어워드 2관왕 달성

인공지능·친환경으로 기술력 뽐내

한국콜마가 지난 20~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된 제56회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2025'에서 코스모팩 어워드 2관왕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혁신기술, 지속가능성 등 2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관왕의 영예를 가져간 기업은 전 세계에서 한국콜마가 유일하다.

'코스모프로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뷰티 박람회다. 매년 글로벌 화장품 기업과 뷰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정한다. 올해는 전세계 총 836개 기업이 참가해 분야별로 11개 제품이 수상했다.

한국콜마는 '카이움'을 선보여 혁신기술 부문 대상을 받았다.

카이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진단하고 맞춤형 스킨케어 제품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복합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구구탐스' 멕시코 수출

한미약품이 멕시코 의약품 시장에서 파이프라인을 확대 구축한다.

한미약품은 지난 2월 멕시코에서 전립선비대증 및 발기부전 치료 복합제 '구구탐스' 출시를 완료해 향후 7년간 판매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구구탐스 멕시코 현지명은 '아디탐스'이며 해당 제품은 한미약품이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선보이는 품목이다.

구구탐스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탐스로신과 발기부전 치료제인 타다라필을 결합한 세계 최초 비노기 질환 복합제다. 한 캡슐에 여러 약효 성분을 조합한 다중캡슐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구구탐스는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는 첫 비노기 질환 복합제인데, 한미약품은 그동안 자체 개발한 복합신약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 멕시코 의약품 시장을 공략해 왔다.

/이청하 기자

동화약품

'제주 보메차' 출시

100% 제주산 메밀·보리 함유

동화약품은 100% 제주산 메밀과 보리를 콜드브루 방식으로 추출해 메밀 고유의 구수함과 깔끔한 풍미를 선사하는 차음료 '제주 보메차'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차음료 시장에서 보리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동화약품이 프리미엄 곡물차 브랜드로 선보이는 제주 보메차는 엄선한 원료로 품질을 업그레이드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

제주 보메차는 제주의 자연이 키운 원료를 100% 사용한 RTD(Ready-To-Drink) 액상 차음료로, 제주의 메밀 영농조합 '한라산아래첫마을'과 협업해 개발했다.

콜드브루 방식으로 우려낸 원료 고유의 풍미를 살린 제주 보메차는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이며, 제주도의 자연을 연상시키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에 가볍고 휴대성이 좋은 500mL 용량의 페트(PET)로 출시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제주산 보리와 메밀을 활용함으로써 현지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한 원료로 만든 건강한 차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산불피해 도움의 손길

GS리테일, 1만 4000여개 긴급 구호물품 추가 지원

행안부와 협의해 5개 지역에 생수, 파이류, 용기면 등 전달

GS리테일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현장 복구 인력을 돕기 위해 1만 4000여개 긴급 구호물품 추가로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GS리테일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안동시, 산청군 등 총 5개 지역에 생수, 파이류, 용기면, 여행용 세트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구호물품은 피해



GS리테일 직원들이 산청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GS리테일

지역 주민은 물론, 화재 진압과 복구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구호 요원,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GS리테일은 지난 23일 산청 및 의성지역에 구호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 상황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GS25 대구·경북 경영주 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겠다는 뜻을 보냈다. GS리테일은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GS리테일 박경량환경·사회·지배구조(ESG) 파트장은 "유례없는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가 구호물품을 준비했다. 경영주협의회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하루빨리 피해 상황이 안정되고,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한국엔컴퍼니(주) 신임 대표이사에 박종호 사장 선임



한국엔컴퍼니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주)가 박종호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사진)로 선임했다.

한국엔컴퍼니는 지난 26일 경기도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박종호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소진공, 노조와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노동조합과 함께 대전시 갑천생태호수공원에서 열린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에 참여했다. 이날 소진공 임직원들은 왕벚나무 등 나무를 심는 활동과 묘목·꽃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활동을 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힘썼다.

/소진공



중기중앙회,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행복한 중기씨' 2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엔 선발한 8명의 서포터즈는 7월까지 4개월간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콘텐츠 제작 ▲중소기업 관련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가운데)이 서포터즈 참여 대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카카오, 긴급 모금캠페인에 120만명 동참

기부금 50억 이상 모여

카카오가 경남과 경북,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긴급 모금 캠페인에 12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동참했다.

카카오는 사회공헌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모인 기부금이 5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도 이용자 응원 댓글 1건당 1000원을 기부하는 등 총 10억원을 기부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카카오같이가치는 지난 23일 오전부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과 함께 기부금 조성을 위해 긴급모금함을 개설했다. 모금 소식은 이용

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각종 SNS 채널을 통해 널리 전파되었고, 4일 만에 1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용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모인 모금액은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생수, 먹거리 등의 식료품과 담요 등의 생필품, 구호 키트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주거 및 생계 지원금으로도 사용된다.

모금 참여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금액을 직접 기부하거나, 응원 댓글을 작성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긴급모금함 페이지에 댓글을 작성하면 카카오가 1건당 1000원을 기부하고, 개별 모금함 페이지에 댓글을 작성할 경우에는 100원을 기부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아모레퍼시픽홀딩스, 피해복구에 2억 기부

아모레퍼시픽홀딩스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원을 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와 이재민 지원 등에 쓰인다.

이상목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대표이사는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과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구호 인력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일시멘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 기탁

한일시멘트가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27일 한일시멘트에 따르면 기부한 성금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 운

영과 피해건물 복구비용, 생계비,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여러분께 작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광고총연합회, 임대기 신임회장 선임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등에 힘쓸 것"

임대기 전(前) 제일기획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27일 한국광고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19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대기 신임 회장은 삼성전자 구조조정본부 전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기획홍보팀 부사장을 거쳐 제일기획 사장, 삼성라이온스 대표, 대한육상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임대기 신임 회장은 "현재 급변하는 대내외 광고 환경 속 어려운 시기"라며 "광고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광고 생태계가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광고총연합회가 중심축으로서 소통과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휘중 기자 yhj@

에듀윌-HY 교육, 지역인재 유입·정착 도모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해 '맞손'

에듀윌이 지난 26일 서울 구로구 본사에서 HY교육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대학생의 국내 대학 진학과 취업 연계로 지역 인재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HY교육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진학지도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학생들의 한국 대학 진학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해외 대학생들이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국내 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국내 지역에 해외 대학생들을 배치함으로써 실제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오는 9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2026년 9월부터 매년 1000여명 규모의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형남 에듀윌 대표는 "해외 대학생 유입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HY교육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연계가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오늘의 날씨

3월 28일(금)
음력: 2월 29일

수도권 날씨
3 ~ 1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사

◆법무부 ◇서기관 승진 △소년보호과 안규용 △전자감독과 이동준 △국립법무병원 감호과장 정명훈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태섭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홍성학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한상경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최현식

부음

▲전소순(향년 75세)씨 별세, 김형진·김형선씨 모친상, 이영기(헝커코리아 대표)씨 장모상 = 27일 오전 4시26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9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31-787-1503



SK엔무브 '지크', K-BPI 27년 연속 1위

SK엔무브의 윤활유 브랜드 '지크'가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엔진오일 부문에서 2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K-BPI는 1999년부터 국내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지크는 K-BPI 발표 첫해부터 올해까지 줄곧 엔진오일 부문 1위를 유지해왔다. /SK엔무브

밸류업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금융위원회와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은 한국이 1.04로서 신흥시장평균치 1.58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중국 1.50, 일본 1.4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23년 말 PBR이 1 미만인 기업 수는 코스피가 526개이고, 코스닥이 533개가 된다. PBR이 1보다 낮은 건 기업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치에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학계나 업계에서는 우리 자본시장이 저평가됐다는 목소리를 낸다. 저평가란 표현은 우리 시장의 본질 가치가 원래 높는데, 시장이 일시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의 주가 수준이 낮을 때 사용한다. 2024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6624달러로 일본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우리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로 일본의 53.2달러, OECD 평균 64.7달러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우리의 총요소생산

성(TFP)증가율은 선진국들보다도 낮은 1%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자본시장은 저평가 상태인가. 아니면 본질 가치가 하락한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향후 우리의 저생산성과 저수익성 구조가 고착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로 판가름이 될 것이다. 정부는 혁신경제의 달성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이 저평가라는 진단 하에 작년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크게 주주환원 확대와 일반주주 권익제고로 압축된다.

먼저, 주주환원확대 정책으로는 배당증액, 자사주 소각 등이 포함된 자본환원률의 제고와 이를 이행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혜택 부여,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 등의 세제지원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일반주주 권익제고 정책으로는 지배구조개선 목적하에 이사회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적절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것과 같이 상장기업이 준수해야 할 행동원칙으로 기업 거버넌스를

도입하거나, 적극적인 상법개정, 전자주주총회 허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협의와 합의의 도출이 요구된다. 상장기업 지배 대주주에게는 밸류업의 유인이 별로 없다. 지배 대주주는 주주환원에 의한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안정적 경영지배권을 확보하거나 주주에게 환원할 자금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계열사 지분율을 확대하는 데에 관심이 더 높다.

무엇보다 지배 대주주의 이해 상충을 견제할 장치 미흡한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에게 밸류업 기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필자는 밸류업 추진에서 꼭 필요한 정책으로 자본시장의 정보흐름을 원활하게 해 시장 본연의 다중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시장의 기업에 대한 선별능력이 제고되길 바란다.

2025년 1월 현재 코스피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수는 각각 848개, 1782개인데, 이 중에서 200~300개 기업에 대해서만 분석보고서가 작성되는 현실이다. 분석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기업탐방을 가장한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정 대상이 되곤 한다. 이렇고서도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당신의 썩은 뇌



김서현 (산업부)

“숏폼(Short form)의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은 하루에 몇 개의 숏폼을 보고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2024년의 단어로 ‘썩은 뇌(Brain rot)’를 선정했다. 숏폼 콘텐츠와 짧은 글만을 읽으며 집중력과 인지력이 급속도로 저하돼 부연 안개 속에서 생각을 하는 듯한 브레인 포그(Brain fog)가 오는 현상을 뜻한다. 비슷한 말로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이 있다.

숏폼과 SNS를 오래 하면 뇌가 썩는다니, 괴담처럼 들리지만 실제 연구결과도 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맥쿼리대학교 연구원 미셸 모셀은 강력한 콘텐츠 소비

에 대하여 “끊임없이 스크롤을 내리게 하는 무한 스크롤링(Doom Scrolling)은 수 시간 동안 사람을 콘텐츠 소비 순환에 가둔다”며 “이는 새 정보를 찾으려는 뇌의 경향을 이용하지만 정작 회백질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주의 지속 시간을 단축하며 기억력 저하와 핵심 인지 기능 왜곡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썩은 뇌 현상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 아니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절반 넘는 한국인이 하루 2시간 가량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의 총 사용시간(2월 25일 기준)은 6965만6607시간으로 전체 앱 중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와 틱톡 등 숏폼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들도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다만 실제 효과는 알 수 없다. 주요 숏폼 플랫폼에서 숏폼 콘텐츠에도 광고비를 책정하면서 오히려 유튜브에서는 사람들

의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주는 채널이 여느 때 보다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정크 콘텐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수만 개가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를 의식없이 시청한다. 한국 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숏폼 콘텐츠를 이용한 응답자 중 52%는 유해한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

과연 숏폼 콘텐츠 제작 또는 시청을 법으로, 제도로 제한할 수 있을까. 관련 업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표현의 자유, 개인의 권리 등과 함께 지금은 누군가의 생계라는 각종 복잡한 문제가 모두 얽혀 있다는 지적이다. 이쯤이면 허공에 한 마디 남기기 외에는 할 것이 없다.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온라인 밖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온기를 즐기자.”

/seo@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8일 (음 2월 2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업무 중에 남에게 의심 살만한 일은 자제. 48년생 용기 있는 자 미인을 얻는다고 했다. 60년생 대가족 행사로 바쁜 하루. 72년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재물도 들어온다. 84년생 진취적인 행동이 후배에게 교감함.



37년생 갑작스러운 초고속 황제예상. 49년생 열심히 했으나 힘만 든다. 61년생 대들보가 무너지면 서까래도 무너진다. 73년생 인생의 예수는 경험일 것이다. 85년생 땅에서 밭을 갈고 물에서 고기를 낚는 것이 세상 아치.



38년생 오후 되면 신규로 투자할 곳이 생긴다. 50년생 겸손의 공덕은 결국 내게 돌아온다. 62년생 한배에 탔으니 힘을 합쳐라. 74년생 목이 마를 때 우물을 판다면 이미 때는 늦는다. 86년생 늦은 결혼이나 즐거움이 꽃핀다.



39년생 형들이 있으나 내가 많이 노름. 51년생 어찌 그 남자는 그림의 떡. 63년생 자식의 재주가 비상하니 조상께 감사. 75년생 산 위에 외로이 비추는 달처럼 감동의 날. 87년생 업무 일에 무조건 반대하는 이유를 찾아보도록.



40년생 기억력을 향상해라. 52년생 밖에도 나가고 하자. 64년생 머리가 가려운데 발꿈치를 긁는다. 76년생 소를 보고 양을 보지 못한다면 사업의 투자는 신중하게. 88년생 내가 아름다워지려면 주변이 아름다운 일들만 가득하길.



41년생 하나를 알면 몇 가지가 인용되기 기회가 온 듯. 53년생 분수없는 행동을 자제하는 날. 65년생 자식처럼 키운 조카가 나를 멀리한다. 77년생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89년생 돈을 못 버니 허수아비 남편이 된다.



42년생 자기 생각을 표현하여 추진해라. 54년생 일이 미흡해도 전진해야 발전. 66년생 모여서 부모님의 산소재정비를 계획. 78년생 아작은 젊으니 외모에도 신경 쓰면서 기본 총계. 90년생 사람은 잘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다.



43년생 잘못된 투지는 결국 내 손실로. 55년생 분실수이니 지갑 잘 챙겨라. 67년생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으니 건강에도 도움. 79년생 업무에 새로운 관심거리가 생긴다. 91년생 본인이 저지른 일은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해결하라.



44년생 당장은 성과가 없어도 시작해야 좋다. 56년생 전화금융사기 등의 책략에 걸리지 않도록. 68년생 초년 입신양명이 자식에게도 이어진다. 80년생 주변에 회색분자(灰色分子)를 경계하도록. 92년생 수학적 통계가 도움을 준다.



45년생 어떠한 일건 해낼 수 있는 날. 57년생 재능이 출중하지만 협력해서 해야. 69년생 사소한 일에 성질내는 것을 삼가 보도록. 81년생 시절을 잊고 잘났다는 듯이 행동하지 말자. 93년생 도중하차(途中下車)는 아니 감만 못하다.



46년생 부모님이 물려주신 자산이 감사. 58년생 학습의 체계는 드넓은 스승이다. 70년생 지위가 높아져도 옛날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신중하라. 82년생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 다르니. 94년생 궁지에 몰려 행동의 제약이 생긴다.



47년생 물건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 소핑을 자제. 59년생 늘 기본에 충실하라. 71년생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편다. 83년생 돈이 사람을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게 한다. 95년생 열을 붉은 꽃이 없으니 운이 왔을 때 열심히 노력을 해보라.



김상회의四季 지난 경칩에

봄은 언제나 설렌다. 봄이 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보여지며 느껴진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겨울 실종이란 소리로 들었지만 지난 겨울은 한강도 열게 했다. 그러다가 겨울 추위가 완연하게 풀리는 시기는 누가 뭐래도 경칩이다. 얼었던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때가 바로 우수와 경칩 때이고, 말 그대로 경칩(驚蟄)은 놀랄 경(驚)자와 벌레 칩(蟄)자이니 날씨가 따뜻하게 풀리면서 겨울잠을 자던 곤충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개구리가 놀라서 뛰어오르는 모습까지 떠오른다.

경칩은 24절기 중의 3번째인데, 입춘부터 시작한 해의 기운이 완연히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필자가 매일 하는 발원 내용 중에는 “춥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 없어지이다. ~”라는 내용도 있는데, 혹은 고통스러운 것은 나아지리라. 날씨가 풀리면 마음도 여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칩이 드는 주간에는 원만 소원성취기도를 입재하곤 한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장애가 없을 수 없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풀리기를 기대하며 겨울에는 추운 날씨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돈문제며 인간관계 등 경색된 것들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 올해 삼월에는 2일이 첫째 일요일인지라 지난 일요일 법회 때 경칩기도를 함께 봉행했다.

실타래가 풀리듯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좋은 일이다. 당장은 어려워도 언제부터 일이 풀릴 것이라는 말만 들어도 힘이 생긴다. 만약 꽤에 어려울 때라고 나온다면 낙담할 일이 아니다. 만물은 유전하므로 바닥을 찍는 어려움 다음은 치고 올라갈 일 밖에 없다. 따뜻한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마음도 활발해진다. 경칩은 겨울이 물러나고 추위가 풀리며 해의 기운이 약동하는 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7		6	1		9			
				2				
		3	4		7	1		
	5						4	6
		2				7		
9	1							8
		4	7		1	8		
				4				
		9	8	5				2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드의 알도그램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1	7	9	8	6	4	9	
4	9	9	2	7	6	1	8	6
6	8	8	1	9	4	7	2	9
9	8	8	7	4	2	9	1	6
1	6	4	9	9	8	2	6	7
9	7	2	6	8	1	4	9	8
8	9	1	4	6	7	6	9	2
7	4	9	8	2	9	8	6	1
8	2	6	8	1	9	9	7	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4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4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우에 쿠보타, 돼지갈비엔 生사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日 사케와 육류의 마리아주

화사한 향이 코를 사로잡는다. 자몽같은 감귤류에 열대과일 중에서도 단맛이 감미로운 멜론같은 분위기다. 솜사탕같은 가벼운 달콤함도 느껴진다. 산미는 튀지 않고 감칠맛, 단맛과 균형감이 좋다.

어느 아로마 좋은 품종의 화이트 와인이나 하겠지만 일본 사케 '닷사이 39'다. 이번 칼럼은 옆길로 섰다. 와인이 아니라 일본 사케다.

사실 사케는 와인과 닮았다. 재료만 포도와 쌀로 다를 뿐 둘 다 증류하지 않은 양조주다. 원재료에 대한 고집과 기후의 영향, 양조자의 노력, 음식과의 마리아주를 신경쓰는 것도 같다. 엔간히 마셔볼 때까지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점도 비슷하다.

사케는 원료나 쌀을 얼마나 깎아냈는



1 (왼쪽부터)닷사이 39, 코시노칸바이 아마네, 쿠보타 만주, 블랙잭 극가라구치, 쿠로에몬 아마하이준마이 아카이와오마치 나마, 쿠보타 센주.
2 쿠보타 만주와 한우 등심의 마리아주.



/니혼슈코리아, 안상미 기자

지 정미율에 따라 다른 명칭이 붙는다. 먼저 '준마이'다. 주정을 섞지 않고 쌀의 발효만으로 만든 사케다. 다음 정미율을 60% 이하면 '긴쵸', 50% 이하면 '다이긴쵸'라고 한다. 떠올려 보면 한 번씩 사케를 마실때 들었던 준마이다이긴쵸가 특정 술 이름이 아니라 특성을 설명해준 명칭이었다.

마리아주 난이도로 보면 사케는 쉬운 편이다. 와인의 경우 서로의 맛을 해쳐서 꼭 피해야 할 음식이 간혹 있지만 사케는 더 어울리거나 덜 어울리는 정도의 차이

만 있을뿐 크게 배척되는 음식이 없다.

니혼슈코리아가 '사케, 불의 요리를 만나'를 주제로 정통 사케와 육류를 페어링하는 행사를 가졌다. 사케라면 이자카야에서만 찾고, 생선회와만 어울릴 것이라던 고정관념을 깨보려는 시도다.

양병일 니혼슈코리아 이사는 "사케를 마신다면 생선회나 초밥만 생각하는 데 고기와도 잘 어울린다"며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닷사이 39는 과실감과 은은한 단맛이

신선한 육회와 잘 어울린다. 준마이다이긴쵸로 39는 쌀을 39%만 남기고 깎아냈다는 의미다. 입 안에서 그토록 매끈하게 느껴졌던 이유다.

닷사이 39가 컬러사진이라면 '코시노칸바이 아마네'는 수묵화같은 사케다. 여백의 미, 음식으로 치면 평양냉면 스타일이니 본격 구운 고기보다는 습습한 수육을 곁들이면 좋다.

한우 생등심과는 '쿠보타 만주'다. 와인에서 '와인은 몰라도 몬테스는 안다'가 있다면 사케의 세계에서 '사케는 몰

라도 쿠보타는 안다'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원조 프리미엄 사케로 국내 인지도가 절대적이다.

생맥주가 있듯 사케도 가열처리를 하지 않은 생(生)사케(나마사케)가 있다. 본연의 맛을 추구하는 만큼 저마다 개성이 뚜렷하다.

'블랙잭 극가라구치'는 여과를 하지 않아 미세한 쌀가루가 보이는 생사케다. 가라구치는 드라이한 맛을 뜻하는데 '극'이니 기름기 많은 차돌을 먹고 입안을 깔끔히 정리해주시기 좋다.

'쿠로에몬 아마하이준마이 아카이와오마치 나마'도 생사케다. 다른 사케와 비교하면 감칠맛은 극대화됐고, 특유의 산미도 뚜렷하다. 복합적이고 무게감이 있어 양념 고기는 물론 쭈꾸미 볶음같은 매운 음식과도 어울린다.

마지막 타지는 '쿠보타 센주'와 만두다. 접근성에서나 가격면에서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접해봤을 사케다. 은은하며 가벼운 맛으로 만두와 잘 어울린다. 무특징이 특징이라고 꼽을 사케인 만큼 어떤 음식과도 편하게 마실 수 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증정은 안 돼?”… 김원훈표 ‘네고왕’ 새 시즌 시작

27일 오후 6시 30분, 네고왕 새 시즌의 막이 오른다. 새롭게 왕좌에 앉은 시민 대표 김원훈은 첫 만남부터 판을 흔들며 강렬한 시작을 알린다. 칭찬으로 시작된 첫 마디, 예상 밖의 제안, 짧고 강한 돌직구 질문. 상대 기업 대표는 당황과 긴장을 오가며 응수하고, 현장엔 묘한 정적과 기 싸움이 이어진다.

마지막까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김원훈의 “증정은 안 돼?”라는 질문에 회사 대표는 “도.됐.니?”라고 맞선다. 이번 네고의 승자는 누가 될까. 소비자 혜택을 위해 무조건 반값부터 시작한다는 김원훈의 각오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달라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즌 네고왕은 ‘호감형 뒤통수 네고’라는 신개념 전략을 앞세워, 강력



한 혜택과 현실적인 공감을 모두 잡는다는 목표다. 네고왕은 에이앤이 코리아의 달라스튜디오가 제작하는 인기 웹예능 시리즈다.

롯데시네마, 아이브 팬 콘서트 ‘아이브 스카우트’ 단독 생중계

다양한 콘텐츠 경험의 무한 확장을 추구하는 롯데시네마가 아이브의 팬들을 위한 콘서트를 단독 생중계한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4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아이브 스카우트(IVE SCOUT)’ 공연을 생중계로 선보인다.

아이브의 세 번째 팬 콘서트 ‘IVE SCOUT’는 스카우트 대원으로 변신한

‘아이브’가 ‘다이버(공식 팬클럽명)’와 즐거운 탐험을 떠나는 콘셉트로,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셋리스트를 통해 팬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롯데시네마의 선명대형스크린과 입체적인 사운드 시스템은 ‘아이브’의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며 현장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콘서트 현장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섬세한 관람 포인트들을 스크린을 통해 단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 극장 생중계를 향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킨다.

‘핑크퐁 아기상어’ 10주년 맞아 韓·美·日 글로벌 팬 만난다

10살 된 ‘핑크퐁 아기상어’가 전세계 투어에 나섰다.

더핑크퐁컴퍼니는 대표 IP ‘핑크퐁 아기상어’ 탄생 10주년을 맞아 한국, 미국, 일본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더핑크퐁컴퍼니는 국내에서 전국 갤러리아백화점 4개 지점에서 ‘핑크퐁X

갤러리아-아기상어 10주년, HAPPY BIRTHDAY 릴레이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

미국에서는 최대 해양테마파크 씨월드와 함께 아기상어 컬래버레이션을 펼친다. 미국 씨월드 3개 지점을 순회할 계획이다.

일본 도쿄에서는 내달 3일부터 6일



까지 4일간 열리는 최대 규모 키즈 페스티벌 ‘아소비 마나비 페스타’에 참여한다.

주말은 책과 함께

中 역사서 속 제왕의 정치와 행적

‘사기’는 중국 전한의 역사가 사마천이 저술한 역사서다. 진시황, 항우, 한고조 등 제왕의 정치와 행적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본기’와 천하에 공명을 떨친 이들의 전기들을 다룬 ‘열전’은 사기 130권의 편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사마천의 마음으로 읽는 사기’는 ‘사기열전’ 70편 가운데 30편을 가려 새로 번역한 뒤 간단한 평어를 덧붙인 책이다. 기원전 일이 현재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신기해 한 편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몽염 열전’의 주인공은 고대 중국 전국시대 세족 명문가 출신의 장수로, 이사와 함께 진나라 통일의 양대 공신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시황 26년(BC. 221) 누대 집안의 힘으로 진나라 장군이 된 몽염은 제나라를 쳐서 대파했고, 내사(內史)에 제수됐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몽염은 진시황의 후계자인 호해의 눈 밖에 나 사약을 받고 죽었다. 선주(시황)에 대한 깊은 충성심을 내세우며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했던 몽염은 죽기 전까지 “내가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잘못도 없이 죽는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과가 엇갈리는 지도자에 대한 평은 언제나 모호하지만, 사마천이 몽염에 내린 평가는 벼수 검법처럼 단호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북쪽 변방에 갔다가 직도로 돌아온 태사공은 몽염이 쌓은 장성과 보루를 보고 탄식했다.



사마천의 마음으로 읽는 사기 / 이승수 지음/돌베개

태사공은 말했다. 산을 파고 골을 메워 곧게 뻗은 길을 내었으니 참으로 백성들의 노고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진나라가 여러 제후국을 멸망시킨 직후 천하의 민심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며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몽염은 명성 높은 장수의 몸으로 강하게 간언해 백성들의 위급한 처지를 구제하고 노약자들을 보살피고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꾸는데 힘쓰지 않고, 군주의 마음에 영합해 거대한 토목공사를 일으켰으니 그 형제가 형장에서 죽은 것이 또한 마땅치 아니한가! 어찌 지맥을 끊은 일에 죄를 돌렸던고!

군주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토목공사를 벌이고, 그 피해는 엄한 백성들이 입는 일이 사마천이 사기를 쓴 지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풀이되는 게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다. 504쪽, 2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

메트로 한줄뉴스



▲北 “미-러 관계 개선, 트럼프 때문 아닌 우크라이나 전 승기 영향”
▲美 항소법원, 트럼프 ‘적국인 추방령’ 중단 명령 유지 /사진 뉴시스

▲中 새 규정에 엔비디아 수출 난항…주가 5%대 폭락
▲日, ‘대만 유사’ 대비 주민 12만명 대피 방안 마련

▲EU, 러 ‘제재 해제’ 요구 거부…“러시아군 철수 우선”
▲트럼프 국경 통제·동맹국 위협에 美 방문객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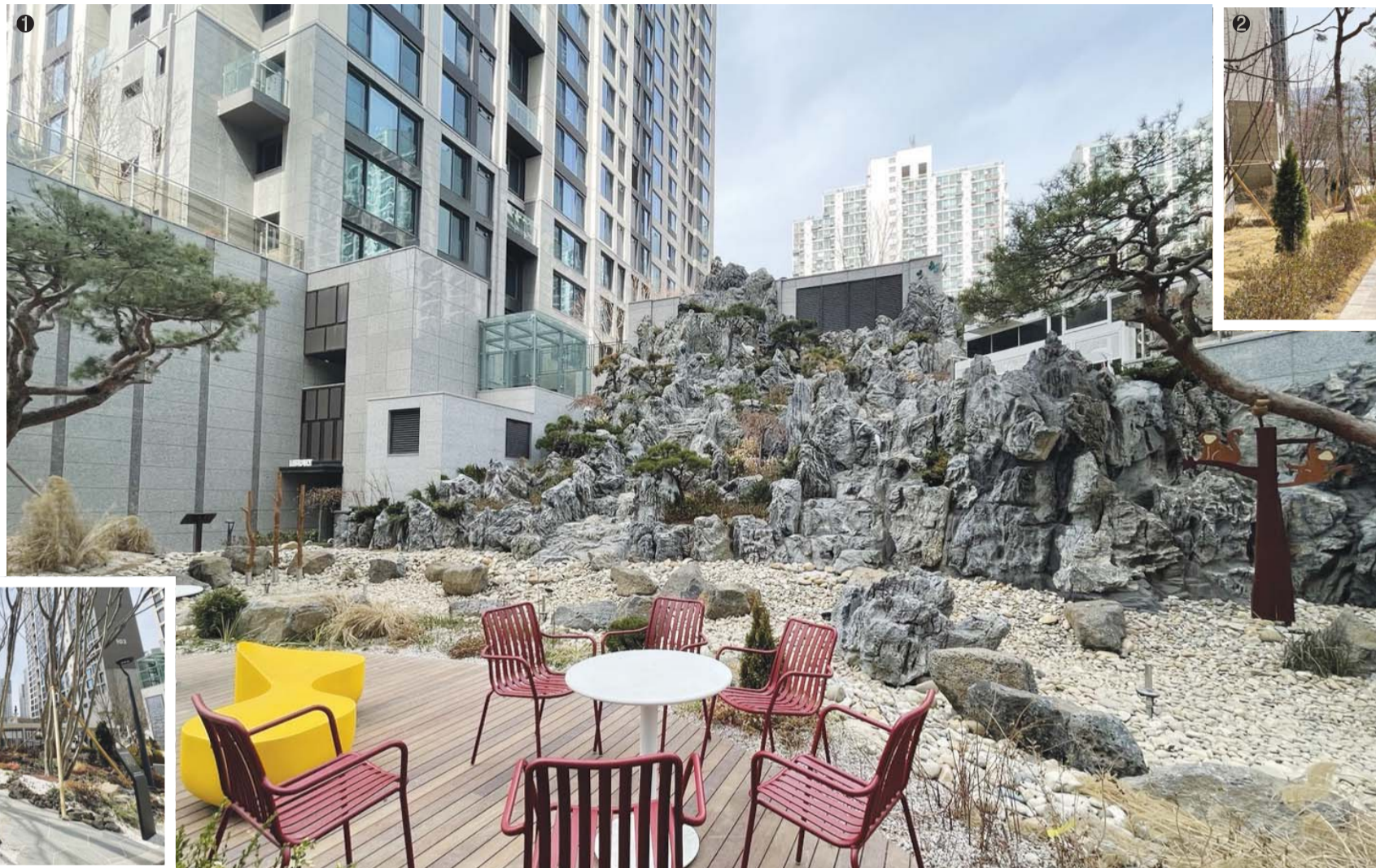


백종원 대표
계속되는 논란에
가맹사업 위기감 고조
L1



Life

국산 임플란트
기술·수출 앞세워
글로벌 판로 확대
L2



예술작품으로 공간에 활력을... “산책하며 감성 충전해요”

아파트의 미학(美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최근 찾아간 서울 관악구 봉천동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안재국 작가의 작품 ‘세포유희’가 설치돼 있다. 풍실몽실 떠오르는 작품의 유기적 형상은 구름의 움직임, 물결의 리듬, 바람의 살랑거림을 구현하고 자연의 유동적인 연결성을 상징한다.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했다. 지하철 7호선 송실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버스로 약 12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앞에 구암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구암중·고교, 상도근린공원 등이 있다. 오는 8월에는 관악문화복지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9개동, 총 997세대 규모다. 봉천4-1-2구역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아파트다. 현대건설이 지었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38㎡ ▲42㎡ ▲52㎡ ▲58㎡ ▲59㎡ ▲84㎡ 등 중소형 면적 위주로 구성했다.

계단식 구조의 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해 해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붉은색의 힐스테이트 로고와 소나무, 다람쥐 조형물이 입주민을 반긴다. 신축 아파

트스러운 외관 자랑하는 신축 단지 조경 공간 연결하는 조형 ‘추상적인 선’ 유동적인 자연 표현한 ‘세포유희’ 등 단지 입구부터 예술작품으로 채워져

테마별 정원, 수생비오톱 수경시설 등 각 공간마다 색다른 감성 느낄 수 있어

트에 걸맞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한다. 산책로, 조각상, 벽천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단지에 들어서면 경관형 수경시설인 ‘블루 웨이브 밸리’와 수생비오톱이 조성돼 있다. 연못을 만들고 들꽃과 나무를 심어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꿈을 공간화 했다.

놀이터 ‘바다 탐험대 옥토포’ 옆에는 ‘씨엘 티하우스’가 있다. 놀이터의 테마와 걸맞은 푸른 파도를 담은 화면이 보인다. 넓은 휴게 공간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클래식 하프놀이터’, ‘선율의 클래프’ 등 다양한 주제로 만든 거대한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단지와 단지를 이어주는 계단마다 ‘그린 뷰 테라스’를 설치한 점도 돋보인다. 단

순히 이동하는 곳이 아닌, 잠시 멈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단지 내에는 여러 정원이 만들어져 있다. 자연생태계 극대화 시켜나무 아래 거칠고 투박한 듯 세련된 조형적 경관정원인 ‘카피너스 가든’, 느티나무 그늘 아래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웰니스 가든’, 소나무 그늘 아래 관악산을 볼 수 있는 ‘네이처 가든’ 등이 있다.

후문에는 ‘센트씨엘’ 로고가 돋보이는 경관형 수경시설이 설치돼 있다. 파란색의 고딕체는 시원함을 극대화 한다. 그 옆에는 육생비오톱을 조성해 곤충과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층식재와 돌무더기, 나무더미를 만들었다.

입구에는 정혜련 작가의 ‘추상적인 선’이란 이름의 작품이 있다. 조경을 캔버스 삼아 유려하게 공간을 연결하는 선형 구조로 개방감을 유지하고 건축물과 대조되는 유연한 곡선적 조형 요소를 공간에 활력을 부여한다.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상상하게 만드는 열린 조형성은 일상에서 새롭게 예술적 영감을 일깨운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① ‘블루 웨이브 밸리’와 ‘수생비오톱’ ② 단지 내 산책로 ③ 경관정원 ‘카피너스 가든’ ④ 단지 입구에 설치된 안재국 작가 ‘세포유희’ ⑤ 후문 입구 있는 정혜련 작가 ‘추상적인 선’ ⑥ 연못과 들꽃으로 꾸며진 수경시설 /전지원 기자



▲용담사 무량전·관덕동 석조보살좌상 산불로 전소 /사진 뉴스사
▲무신사, 입점 브랜드와 산불 피해 지역에 의류 기부

▲티빙, KBO 개막 2연전 방문자 수 전년보다 16% 증가
▲“광주는 해외 원정”... 포항 응원단, ‘지역 비하’에 구단·단장 사과

▲문체부, 공연 예술 해외 진출·지역 중심 지원 방안 논의
▲소방관 “산속에서 밤낮없이 분투”... 응원 쏟아져

LG와 함께할 가슴 뛰는 미래

AI,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소중한 시간을 보다 즐겁고 의미 있게 쓰는 미래

고객의 시간 가치를 높이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